



2019 육아정책 심포지엄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행복한 유아와 안심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

2019. **7. 9.**(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유아교육학회, 국회의원 김해영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9 육아정책 심포지엄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행복한 유아와 안심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

2019. **7. 9.**(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유아교육학회, 국회의원 김해영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아동 행복, 육아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 행복한 유아와 안심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



- 일시 : 2019. 7. 9(화), 10:00~12:00
- 장소 : 국회 제1세미나실

사회: 최은영 기획조정본부장

시간	세부일정
10:00	개회
10:00~10:10	환영사 백선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인사말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미라 회장 (한국유아교육학회)
주제발표	
10:10~11:10	발표 1. “놀아서 행복해요!” : 유아의 놀 ‘권리’와 행복의 실현 임수진 교수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발표 2. 우리나라 유아의 사교육 참여 실태와 놀이권 김은영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종합토론	
11:10~11:50	토 론 이종희 교수 (동덕여대 아동학과) 오경숙 원장 (면일어린이집) 박다정 교사 (위례푸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왕혜진 학부모 (트위터·페이스북 육아당 운영자)
11:50~12:00	정리 및 폐회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애써주신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의원님, 한국 유아교육학회의 정미라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매년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육아지원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동의 행복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육아정책연구소는 올해 2019년의 육아정책심포지엄을 태아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아동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기획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대주제로 아동의 발달 시기별로 필요한 육아정책에 대해 총 4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에서는 ‘건강한 태아 및 신생아기를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를,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건강한 영아와 행복한 부모를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행복한 유아와 안심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되는 시기로 부모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또래에게로 관계를 점차 확장해 나갑니다. 유아기에는 또래와의 신나는 놀이를 통해 신체,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등 모든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는 전인적인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유아기에는 본인이 속한 환경에서 주변 사람과 사물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유아에게 놀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경쟁사회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자녀들을 유아기부터 혹은 더 일찍 학습 중심의 사교육에 노출시킵니다. 이로 인해 신나는 놀이로 채워져야 할 유아기 소중한 시간들이 실제로 큰 효과가 없는 다양한 이름의 사교육으로 채워집니다.

최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충분히 놀고 편안하게 쉴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는 하루종일 놀고 쉬면서 행복을 보장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자녀가 뒤쳐질까 하는 부모들의 불안감 때문에 많은 유아들이 충분히 놀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교육을 하면서 놀이권과 행복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유아들의 권리를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심포지엄이 유아들은 행복하고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도록 유아기 지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유아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어떤 지원정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함께하셔서 발표를 해주시는 동신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임수진 교수님과 육아정책연구소의 김은영 박사님, 토론을 맡아주신 동덕여대 아동학과 이종희 교수님, 면일 어린이집 오경숙 원장님, 위례푸른마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박다정 선생님, 육아당 운영진이신 왕혜진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7월 9일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부산 연제구 김해영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2019 육아정책 심포지엄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님과 한국육아교육학회 정미라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행복한 유아와 안심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정책 실현을 위해 오늘 자리를 빛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8명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 사회현실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으나, '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6.57점으로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18. 아동실태 조사)으로 낮은 행복감을 보이면서 새로운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아동은 더 이상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과 함께 육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과 함께, 저출산 대책 또한 출산율 중심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및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의 방향 전환을 추진하며 유아와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아동 행복과 육아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보육 및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달성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 확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배치, 보육료 현실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행복한 유아와 안심하는 부모를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어, 실질적인 육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저출산 대응의 방향성에 대한 점검은 물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유아와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육아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영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가 기획한 ‘아동 행복, 육아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 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심포지엄에 김해영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유아교육학회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행복한 유아와 안심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라는 큰 주제 아래 유아의 놀 권리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아들은 놀면서 자란다’는 말은 누구나 동의하고 유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개정 과정에서 유아 놀이가 가장 강조되었고, 그 방법과 지원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습니다. 국가차원에서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동 권리와 정부 책임을 발표하면서 아동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과 함께 놀이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유아교육학회에서도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유아 놀이의 의미와 교사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은 유아 교육자는 물론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유아에게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성하게 해주었으며, 유아의 놀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과거 어느때 보다 가장 활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유아의 놀 권리와 행복의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해 보고 이러한 놀이권을 저해하는 우리사회 문제는 무엇인지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유아 교육기관의 교사는 물론 부모나 사회, 구성원들이 유아의 진정한 놀이권을 보장하고 지원해주기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9년 7월 9일

제 21대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정미라

CONTENTS

발표 1. “놀아서 행복해요!” : 유아의 놀 ‘권리’와 행복의 실현	1
임수진 교수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발표 2. 우리나라 유아의 사교육 참여 실태와 놀이권	21
김은영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토 론	47
이종희 교수 (동덕여대 아동학과)	
오경숙 원장 (면일어린이집)	
박다정 교사 (위례푸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왕혜진 학부모 (트위터·페이스북 육아당 운영자)	

발표 1

“

**“놀아서 행복해요!”
: 유아의 놀 ‘권리’와 행복의 실현**

”

임수진 교수 |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놀아서 행복해요!” : 유아의 놀 ‘권리’와 행복의 실현

임수진 |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 들어가며
2. 아동의 놀 ‘권리’의 탄생
 - 1) 아동기의 탄생과 놀 ‘권리’
 - 2) 행복의 추구와 놀 ‘권리’: 보호, 참여, 제공의 이해
3. 유아교육기관과 ‘놀 권리’ 실현

- 1) 놀이에서의 자유: 시간과 공간의 확장
 - 2) 놀이 속 긴장, 갈등에서 출발하는 사회적 관계
 - 3) 사물놀이: 놀이와 놀이가 아닌 것
 4. 나가며
- 참고문헌

1. 들어가며

놀이하는 아이만큼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놀이란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성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인간 내면의 자연성이 발로되는 그 자체가 목적인 자기표현 활동이라고 한다. 아동¹⁾은 놀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함께 사회적 통제로부터의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는 까닭에 행복하다. 따라서 놀이를 하려는 아동의 동기는 매우 강해서 놀잇감이 없거나 주변에서 놀이행동을 적극적으로 격려하지 않을 때에도, 혹은 놀이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놀이를 한다. 연구자들은 놀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놀이가 사회, 인지, 신체, 감정 영역 전반에 걸쳐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으며,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놀이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여 협약 제31조 1항, 2항에서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아동기(childhood)란 출생에서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기간으로 유엔의 규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놀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성인과 구별되는 의미로서의 아동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 등 특정 맥락에서 유아(만 3세-5세)를 사용한다.

제31조²⁾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2019년 5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의 권리인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의 4개 아동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 가능하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이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으나 낮은 행복감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책 입안 배경으로 제시하고, 아동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맥락에서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여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명시하는 놀이권은 아동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 모범 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 정보 및 전문성 부족, 공간 등 놀이 활용에 적합한 자원 부족을 중요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여 놀이혁신을 빠르게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표방한다. 이를 위해 아동을 중심으로 정부, 지역공동체, 학부모,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³⁾. 정부 차원에서 놀이권을 명시하고 시간, 공간, 놀이문화(성인의 인식 포함)를 포함하는 놀이정책을 제안한 것은 놀이가 지니는 보편성과 함께 오늘날 우리나라 아동에게 놀 권리가 제대로 보장·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놀이는 인류 역사를 통해 여러 시대, 사회, 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아동기의 본질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아동은 20년 전의 아동보다 놀이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아동의 학습시간과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놀이 유형 역시 제한적이고, 특히 신체를 활용한 놀이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Elkind, 2008). 놀이문화나 놀이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발효일 1991. 12. 2]로 [다자조약, 제1072호, 1991. 12. 23]으로 명시함

3)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한다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래와 상호작용하여 놀이할 수 있는 바깥 놀이 및 자유 놀이 1일 1시간 이상 확보와 놀 권리와 실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후 놀이유치원 지속 확대('18. 51개 → '19. 500개)를 제시하였다.

환경 역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놀이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동의 놀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아동의 삶과 놀 권리가 어떻게 관련성을 가지며 형성되어 왔는지를 논의하고,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몇 가지 개념을 재고해보고자 한다.

2. 아동의 놀 ‘권리’ 의 탄생

놀이는 언제부터 아동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정의되었을까? 역사적으로 아동 놀이에 대해 접근한 학자들은 근대 이후에 아동이 발견되었으며, 이와 함께 아동 놀이의 개념화와 구성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한편 놀이를 아동의 특징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놀 권리로 접근한 것은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놀이와 놀 ‘권리’의 발생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놀이를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1) 아동기의 탄생과 놀 ‘권리’⁴⁾

네델란드 출신의 역사학자인 하위징아는 <호모루덴스>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 ‘호모사피엔스’이며 ‘놀이하는 인간’, 곧 ‘호모루덴스’라고 하였다. 인간에게 놀이가 근원적인 삶의 충동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문명이 전개되는 토대로 놀이를 제시함으로써 놀이가 인간 삶의 근원임을 이야기한다. 이는 그가 한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된 것으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언제나 다양하게 발전해왔으며, 인간의 문화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다’

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놀이를 역사적·문화적으로 집대성한 하위징아가 놀이의 특징으로 꼽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는 자유로운(자발적) 행위이다. 둘째, 일상생활 밖에서 행해진다. 셋째, 일상적 상황에서 벗어나 있지만, 놀이는 놀이하는 사람을 강렬하게 사로잡을 수 있다. 넷째, 물질적 이해관계나 이익이 없다. 다섯째, 고유한 법칙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섯째, 사회적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한다. 하위징아는 이와 같이 사회 기능적 측면에서

4) 임수진, 김윤희, 박형신, 이승하, 장경은, 탁정화 (2019). 놀이하는 유아-호모 루덴스를 향하여. 경기:양서원, 제1장 발췌 및 일부 연구 추가

놀이의 본질을 제시하며, 놀이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충동과 문화로서의 놀이가 아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Ariès는 놀이, 민요, 개인 서신, 가정일지, 각종 판화와 그림 등을 기초로 아동이 성인과 다르다는 인식은 14세기부터 일부 나타났으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적인 가족 구조가 형성되며 가족과 공동체 생활의 구분이 명확해지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임을 주장하였다. 한 시대의 인간집단이 형성하는 인식, 감정,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변화 과정을 추적한 「아동기의 탄생」(Centuries of Childhood)에서 아동기(childhood)는 17세기에 들어서 ‘발견’된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 영아 사망률의 감소, 유럽의 교육 제도 변화, 근대 가족구조의 출현에 따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동기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중세 시대 이전에도 아동에 대한 애정과 보호는 있었지만, 17세기 이전에는 아동을 ‘작은 어른’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서구 사회의 지배계층에서도 아동기를 특별한 시기로 생각하지 않았고, 아동은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 역시 부족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아동을 위한 동화나 노래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동은 7살이 되면 어른처럼 작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어른의 놀이에 참여하였다. 어른과 아이를 뚜렷하게 구분 짓는 것에 대한 집단의식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놀이와 아동의 발달 간의 관계, 아동 놀이의 종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동기’라는 시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남에 기인한다. 따라서 아동만의 놀이가 나타나고, 아동만을 위한 놀잇감이 놀이도구로 등장하고, 성인과 어린이의 놀이가 다른 범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아동기의 가치에 대해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인간 생애 주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단계로 분리하여 생각하게 되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성인과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심성(sentiment)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아동 놀이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은 더 근래의 일이다.

이러한 시선은 미국 역사에서 놀이의 의미와 변화과정을 탐색한 Chudacoff의 연구(2007)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청교도적 삶이 주요했던 초기 미국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은 이분법적으로 사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이면서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 성인의 지도가 필요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놀이는 18세기 중·후반까지는 사실상 억압되어 있었고(Hughes, 2012), 아동을 종교적 그리고 직업적 윤리의 발달로 이끄는 것이라는 조건하에서만 허용되었다. 따라서 성인과 아동의 놀이 간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아동과 성인이 종종 함께 놀고, 같은 놀잇감이나 도구를 사용했다고 기술한다.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아동기를 고유한 시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놀이를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동 대상의 놀잇감 역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기의 탄생과 함께 구분되기 시작한 아동의 ‘놀이’는 20 세기에 들어 폭발적인 환영을 받았다. Smith(2008)는 이를 ‘놀이 정신(play ethos)’의 발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놀이 본래의 가치, 분위기, 놀이를 하는 아동의 특성을 의미한다. 그는 1920년대 이후부터 교육적 사고는 놀이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놀이 정신이야말로 아동 발달과정 과정에서의 본질이라고 정의하며 아동을 이해할 고유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다만 교사나 부모 등 성인 입장에서 과장하여 놀이를 해석하는 것에 유의해야 함을 지적한다. Chudacoff(2007) 역시 성인은 놀이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놀이의 실행, 지도, 안내, 감독을 생각하지만, 아동은 놀이를 완전하게 실행하기 위해 자신들의 세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해 놀이를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역사 안에서 아동은 성인이 사용하고 싶어 했던 방식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놀이해 왔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놀이하고, 놀잇감을 조작하며, 진정한 놀이의 가치를 창조한다고 하였다. 아동은 성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이 고안해 낸 독립적인 놀이문화 속에서 살아가므로 아동의 놀이에 있어 변화하지 않은 두 가지는 자율성의 탐색과 창의성의 발현에 대한 추구를 주장하였다.

정리하면, 역사적으로 놀이는 아동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가족구조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아동의 발달에서 중요한 위치를 부여받았으며, 놀도록 허용되었을 뿐 아니라 아동은 놀아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놀 권리’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시간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놀이가 아동의 정서적 해방뿐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발달의 기회를 허용한다는 신념에 기초해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아동의 놀이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 들인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놀이의 고유한 가치가 진정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놀 권리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Lester & Russel, 2010).

2) 행복의 추구하고 놀 ‘권리’: 보호, 참여, 제공의 이해

근대를 거치며 아동기의 개념이 ‘발견’ 혹은 ‘탄생’된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개념화되어 왔다. 놀 ‘권리’는 놀이를 아동의 특성으로 개념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이는 법의 지배와 시민권의 실현, 평등과 복지를 추구하는 현대 국가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다. 아동권리협약은 다국가 간 협약으로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으며, 각 나라에서 아동에 대한 정책과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아동의 부모나 성인은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고(5조), 아동은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6조), 부모가

아동을 잘 기르고, 아동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18조, 25조)하도록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28조)와 동시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되어 있다(31조).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2013년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제17호 총평을 통해 제31조에 명시된 권리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지 않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도시 인구의 증가, 놀이의 상업화, 지나치게 강조되는 초기 시기의 학문적 성취,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아동의 노동문제, 여러 유형의 폭력에 대한 노출 등이 모든 아동이 놀 권리를 누릴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은 아동이 자발적 놀이, 오락 활동, 휴식과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지원하는 사회적 태도와 정책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이다.

III. 아동 생활에서의 제31조의 중요성(일부)

8. 제31조는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1조의 각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의 실현을 통해 아동의 삶이 풍요롭게 된다. 이의 실현은 아동기의 독특하고 진화하는 특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설명한다. 또한 아동기의 질, 최적의 발달에 대한 아동의 권리, 탄력성의 증진 및 다른 권리의 실현에 기본적인 것이다. 실제로 모든 아동이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창조성을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 자기 주도 놀이를 통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동기 부여, 신체 활동 및 기술 개발을 향상시킨다. 문화생활에 몰입하면 즐거운 상호 작용이 풍성해진다. 휴식은 아이들이 놀이와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동기 부여를 보장한다.
9.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이며 창의력, 상상력, 자신감, 자기 효능감, 육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힘과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킨다. 이는 학습의 모든 측면에 기여한다.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은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순수하게 아동이 누리는 즐거움의 측면에서 본질적 가치가 있다. 연구 결과는 놀이가 아동발달의 중심이기도 하며, 특히 초창기에 두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은 아동이 협상하고, 감정적 균형을 되찾고, 갈등을 해소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은 다음과 같이 학습한다: 그들은 주변 세계를 탐험하고 경험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역할 및 경험을 실험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의 사회적 지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따라서 오늘날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 권리의 핵심적 요소인 보호, 참여, 제공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Russell과 Lester(2010)는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와 영국의 놀이권 실행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분석하며, 세 가지 핵심 용어인 ‘인정하고, 존중하며, 증진시킨다.’를 3P(보호, 참여, 제공) 개념과 발달심리학, 그리고 신경생리학 관련 연구를 포함하여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포괄적 아동정책을 실행하는 과정,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아교육 분야에서 함께 공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보호(Protection rights)

보호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존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놀 권리에서의 보호는 단지 아동이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모두에 있어 자신을 보전하고, 환경에의 요구에 유리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놀이가 적응력과 탄력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동에게 자기 보호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놀이 경험은 특히 감정, 동기 부여 및 보상과 관련이 있는 뇌 구조에 시스템적인 변화를 가져와 이후에 더 많이, 잘 놀이하도록 유도한다(Burghardt, 2005; Diamond & Hopson, 2006). 즉 많이 놀이하고, 놀이 과정에서 긍정의 감정을 많이 느끼면 행복하고, 이것이 보상이 되어 다시 놀이를 하게 되므로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놀이하는 행위는 적응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적응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Burghardt(2005)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놀이실험을 기초로 인간의 뇌와 놀이의 관계성을 설명하였다. 그는 자발성과 내재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놀이 경험이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활성화하는 화학적 과정을 촉진하고,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가시(dendritic spine)에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냄을 지적한다. 수상돌기 가시는 다른 신경세포와 함께 시냅스 활성화에 의해 야기되는 다양한 화학반응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수상돌기의 가시가 기억에 관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놀이 경험은 본질적으로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경 구조(정서, 지각, 동기)를 형성하고 통합하며, 놀이 성향의 발달과 유지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놀이를 통해 아동은 다양한 자극에 대해 인지·반응하고, 자기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므로 놀이는 아동에게 매우 매력적인 자기 보호의 방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해진다(Russell & Lester, 2010). 즉 아동이 즐겁게 놀이하며 또래와 함께 하는 동안 뇌 안에서는 생존을 지원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마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성인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적 행위 외에 놀이가 아동이 자신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Participation rights)

아동의 놀이는 매일의 일상에 녹아 있는 참여의 가장 중요한 형태이다(Meire, 2007).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 놀이에 ‘참여’할 때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Hart, 2008). 이는 참여의 권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즉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에 부합한다.

아동은 놀이를 하며 자신들이 놀이 환경을 활용하는 관행과 성인의 '상식'이 다름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성인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놀이 환경은 성인에 의해 만들어져 성인 입장에서의 질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아동을 특정 방식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구조와 통제성을 내재하고 있다(Russell & Lester, 2010). 많은 경우 성인들은 아동이 시간-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한하거나 사회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한정한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자신들만의 놀이방법을 찾는 아동의 놀이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은 자신을 방해하지 않고 성인의 간섭이나 지원이 거의 없이 놀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을 찾는다(Gaskins, 2000). 여러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놀이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아동이 성인의 조직화된 세계와 거리를 두고 자신들만의 또래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보고한다.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동의 권리 실현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아동이 놀이를 하는 때 순간 이루어져야 할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인 주도 하에 놀이문화를 체계화하려는 경우 더욱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아동이 놀이에 참여하여 자신들만의 놀이문화를 만들고 놀이 환경을 재창조하는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주관성을 구현하는 '표현' 과정이다. 같은 물리적 공간을 공유한다고 해도 모든 아동이 같은 인식과 감정, 경험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놀이에서 발견되는 아동의 주체성은 나이, 가족 맥락, 계급/가정, 성별, 민족, 종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포함하는 여러 변수와 함께 섞여 있다. 따라서 성인이 정한 범주와 유형에 따라 아동의 놀이를 분류하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차이'가 함께 작용함을 인정하는 방향의 실현이 중요하다.

한편 Burghardt(2005)는 신경생리학 분야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아동의 참여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놀이는 충분한 신진대사 에너지의 확보와 관련이 있다. 인간은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하며 동시에 놀이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질병이나 식량 부족, 생명의 위협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놀이가 제대로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여 아동이 놀이에 참여할 에너지를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심한 스트레스는 뇌의 '하향조절'을 가져와 아동의 놀이참여를 방해한다. 놀이 참여는 긴급한 생존 욕구가 충족된 이후, 즉 '편안한 폭발'이라고 일컫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성인은 아동이 지나친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놀이 참여에 대한 '우선 순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동은 본능적으로 자극을 추구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수준의 각성은 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동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각성이 가능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의할 점은 각 아동의 반응은 고유하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각성에 있어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아동의 참여를 위해서는 각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아동이 놀이에 참여하는 데에는 신경체계, 생태학적 요인 등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신경 및 행동 기반을 확립한다. 안전한 기반 아래서, 아동은 환경의 사회적, 물리적 여건을 탐구하고 놀이를 현실화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공(Provision rights)

놀이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문화, 사회, 물리적 구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Meire, 2007) 아동 환경의 질은 그들의 참여와 놀이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놀이할 시간과 공간은 무척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의 놀이공간은 정부, 지역공동체, 기관 등 사회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어떤 공간은 아동의 개별적 이동이 불가능해 접근성이 없고, 일부 아동이 속한 지역 환경은 두려움과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일 수 있다. 이런 곳들은 아동이 놀이하기에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놀이공간은 단조롭고 규격화되어 있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공은 공간적 측면에서 놀이 시설을 제공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아동의 놀이에 대한 충동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실현될 때, 아동은 그 공간과 놀이경험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 공간 혹은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놀이권에서의 제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놀이 환경은 아동의 가치를 보장하며, 아동과 환경 간 상호 작용은 상호 지원적이며, 삶의 스트레스와 압박으로부터 완충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로 제안하는 것은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경험이다. 아동의 행복감, 건강 수준, 회복력, 인지 기능 및 운동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Bird 2007; Gill, 2014; Lester & Russell 2008; Munoz, 2009). 표준화된 공간 구조, 놀이설비가 있는 놀이터보다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자연공간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아동은 도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일상 환경(가정, 거리, 이웃, 관리 환경 등)을 어떻게 놀이에 활용하도록 하며, 놀이 환경을 설계할지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중심부를 허브로 하여 놀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구축하면 더 안전하고, 활기차고, 탄력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3. 유아교육기관과 ‘놀 권리’ 실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자와 연구자에게 당면한 과제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놀이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시각, 서로 다른 환경적 조건 하에서 온전히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각 개별 아동의 자유놀이를 ‘학교’ 수준의 ‘교육’이라는 장(場) 안에서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해 온 것이 놀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이와 놀이가 아닌 무엇”과의 비교를 통해 놀이를 비교·정의하고, 몇몇의 특징으로 개념화하기보다 놀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시대와 사회적 흐름,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수용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놀이를 규정하는 특징에 근거하여, 어떠한 활동이 진정한 놀이로 명명되다할지라도 그러한 판단이 단지 성인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놀이 정신(play ethos)을 구현하는 것이다. 경험의 질은 참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놀이와 학습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아동의 관점에서 놀이를 바라보기 위해 생각해 볼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놀이에서의 자유: 시간과 공간의 확장⁵⁾

물리적으로 놀이는 규칙과 질서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과 공간의 경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놀이는 끝없이 지속되지 않는다. 일정 시점에서 놀이는 종료된다. 놀이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기도 한다. 가령, 놀이의 시간은 현실의 시간과 다를 수 있다. 현실 속 시간은 낮이지만 놀이 속 시간은 밤이 될 수 있다. 또한 놀이는 끝없이 반복될 수 있다. 같은 시간을 계속 반복하여 놀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놀이하는 동안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가는 등 시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아동은 놀이 안에서 새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다. 현실 세계의 시간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시간의 변화와 조작이 가능한 순간들이 놀이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렇듯 놀이에서의 시간은 현실 세계의 시간으로부터 독립하여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놀이에서는 현실 세계의 공간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현실 세계의 공간이 반드시 놀이 공간이 되지는 않는다. 아동은 현실 세계의 공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을 놀이 안에서 창조할 수 있다. 놀이에서 발휘되는 상상력은 현실에서 벗어난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상력은 우리가 지각한 현실에 대한 사고가 아니라 현실과는 다른 공간을 창조

5) 임수진, 김윤희, 박형신, 이승하, 장경은, 탁정화 (2019). 놀이하는 유아-호모 루덴스를 향하여. 경기:양서원. 제1장의 일부 발췌

한다. 상상은 다른 형태의 사고가 되며, 상상을 하는 사람이 현실에 대한 사고로 돌아왔을 때 끝을 맺는다. 놀이 세계에서 아이의 방은 전쟁터가 되거나 때로는 병원이 되기도 한다. 현실 세계의 공간과는 별개로 유아는 놀이 세계의 공간을 스스로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아동의 자유로운 상상 안에서 가능해진다. 즉, 시간과 공간의 독립, 그리고 확장은 아동이 놀이 안에서 자유로운 상상을 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상상에 의한 현실세계의 변형, 파편화, 조작 등이 일어나지 않고 현실세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Fink(2012)가 놀이를 “진지한 삶의 가상적 바뀌기”로 정의했듯이 놀이에서는 현실 세계의 왜곡이 일어나며, 이러한 왜곡은 아동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다. Vygotsky(1980)에 의하면, 놀이는 상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상상은 욕구의 충족이자 행동의 동기가 된다. 인간은 상상을 하면서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낀다. 곧 상상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인간은 정신적인 자유를 얻는다.

이처럼 현실 세계로부터 독립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동이 성인에게 통제되는 현실 세계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를 의미한다. 놀이를 하며 아동은 부모와 학교로부터의 구속과 통제에서 잠시 떠나 또래와 함께 어울려 놀며 시간과 공간을 향유하게 된다. 놀이에서 일어나는 시공간의 독립은 주어진 안전한 상태를 벗어나며 느끼는 불안감과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라는 양가감정으로 이어지게 한다. 독립된 시간과 공간에서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발적 통제를 경험한다.

역으로 말하면, 외부에 의한 통제와 제약이 놀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할수록 아동의 놀이는 자유라는 본질을 잃게 된다. 성인의 관점만 고려하여 놀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놀이에서 시간과 공간은 확장되지 않으며 결국 이는 놀이다운 놀이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발적으로 놀이 시간과 공간을 구성하며 통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놀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놀이 공간에 대한 제한은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놀이 환경을 조성하거나 놀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놀이 공간에 대한 통제로 인해 자유의 억압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아동에게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일종의 규칙과 같다. Maslow(1943)의 욕구위계설에 따르면 안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인간에게 있어 다른 욕구는 중요해지지 않는다. 가령, 위험한 상황에서는 타인에게 존중과 애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갈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전이 보장되어야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하고 발달할 수 있다. 물론 아동은 발달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도 불완전하다. 따라서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놀이 환경에 많은 제약을 두게 되므로 놀이에서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안전규정에 따라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는 우리 주변의 안전한 놀이터는 어느 곳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한 놀이터가 때로는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를 방해할 수도 있다. 편해문(2015)은 『놀이터는 위험해야 안전하다』는 저서에서 지루한 놀이터에서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놀이터와 놀이기구가 재미없어지면 기구를 본래의 기능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즉, 위험해 보이지만 도전적인 놀이터 안에서 아이들은 안전에 더욱 집중하며 충분히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역으로 아동의 놀이에서 자유로움을 빼앗을 수 있다.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를 위하여 도전과 모험심을 자극하되 안전과의 균형도 적절하게 고려하는 놀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놀이에서의 안전과 자유의 문제는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아동의 놀이에서의 우선 가치의 균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김명순, 2018). 성인이 아동의 놀잇감과 놀이 환경을 제공함에 있어서 재미와 자유보다 안전을 우선 가치로 둔다면 아동이 놀이다운 놀이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성인의 관점만 고려한 놀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물리적 제약은 놀이에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놀이에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는 제한되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한다. 시공간의 확장은 놀이에서의 자유의 전제가 된다.

2) 놀이 속 긴장, 갈등에서 출발하는 사회적 관계⁶⁾

놀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갈등(conflicts)은 긴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연구되기도 한다. 긴장은 불확실하고 위태로우며 내적으로 평온하지 못한 불균형한 상태인 반면, 갈등은 보다 표면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행동이나 그러한 상태로 간주된다. 놀이를 더 잘 해내고 싶은 욕망,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강렬한 욕망은 개인 내, 개인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개인 내 갈등은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규칙을 준수할 것인가’, ‘속임수를 쓸 것인가’와 같은 것이다. 개인 간 갈등은 같은 팀 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일 수도 있고,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일어나는 갈등일 수도 있다. 사실 이 두 가지 갈등은 서로 얽혀 있다. 속임수를 쓸까 망설이는 사람은 개인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며,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결국 경쟁자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을 아동은 스스로 해결하며, 공격성을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양보나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맞추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물론 놀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이나 갈등을 몸싸움, 언쟁, 반항, 강요와 같은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음 번 놀이를 지속하는 데는 매우 치명적이다. 앞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래와 놀이할 수 있을 것인가는 현재의 갈등을 공감(정서) 인내, 양보, 타협, 이해 등의 친사회적이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것이 놀이에서의 지속적인 참여, 사회적 관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임수진, 김윤희, 박형신, 이승하, 장경은, 탁정화 (2019). 놀이하는 유아-호모 루덴스를 향하여. 경기:양서원. 제2장의 일부 발췌

그렇다면, 아동이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에 몰입한다면,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며 놀이에 참여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이는 도덕적 가치를 발달시키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회적 유능성과 도덕적 성향이 같은 것인지 살펴보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유능성이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의 접점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자신의 요구는 표현하지 못한 채 타인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것과 타인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은 모두 사회적으로 유능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유능성은 크게 두 가지 기준과 관련한 구인인데,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면, 두 번째는 타인의 입장과 요구를 고려하는 능력으로 도덕적 측면과 관련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사회적 유능성인지, 아니면 하나만 갖추어도 유능하다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 진화론적 발달심리학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 보고 있으며, 도덕발달심리학자들은 두 번째를 사용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회적 유능성은 타인과 관련한 사회적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분명 타인을 고려해야 하는 면이 들어가지만 도덕성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동의 지배력에 관하여 연구해 온 Hawely(2002)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들 사이에서 놀이의 중심을 차지하는 아동이 항상 친사회적이거나 모범적이지만은 않다. 놀이의 중심을 차지하는 아동 중 일부는 지배적 성향이 높는데, 자신이 리더 혹은 놀이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다른 아동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때로 명령을 내리거나, 이간질, 따돌림과 같은 강압적 방법으로 자신의 뜻에 따르게 하기도 한다. 즉, 놀이에서 리더를 하는 아동은 친사회적 전략, 반사회적 전략을 번갈아 가며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은 대체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유능하지만,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고려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자면 그렇지 않다. 이는 사회적 유능성의 첫 번째 기준만을 충족하는 경우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동의 놀이 안정성은 어떠한가? 이러한 아동은 놀이짝이 종종 바뀔 수 있다. 놀이짝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에서 특정한 상대와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의 안녕에 관심을 갖는 우정의 단계로 발전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놀이를 잘 하는 아동은 어떤 아동일까. 놀이 속 긴장을 즐기며, 긍정적이고 유쾌한 분위기로 놀이에 참여하며 많은 아동이 놀고 싶어 하는 아동일까? 놀이를 진정으로 잘한다는 것은 규칙을 잘 지키며, 긴장을 즐기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이유가 나 자신만의 이득이(예: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그 아이가 나한테 뭔가 해줄 거야)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를 나의 일처럼 느끼는 정서적 측면이 포함되는 것이다. 즉 행동의 의도 혹은 동기적 측면까지 포함되었을 때 비로소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놀이를 잘하는 아동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도덕적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러한 결과

들은 놀이의 본질인 긴장과 갈등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성인이 놀이 안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바라보는데 있어 하나의 단서를 준다.

3) 사물놀이: 놀이와 놀이가 아닌 것⁷⁾

아동이 즐겨하는 사물놀이는 사물 안에 내재된 물리적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확장한다. 아동은 사물놀이를 통해 인과관계의 복잡성과 과학적 추론을 경험한다. 운동에너지, 무게중심, 장력 등 사물 안에 내재된 관계성, 그리고 사물과 사물 간의 인과관계와 메커니즘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라이트 형제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았던 고무 동력기에는 다양한 물리적 원리가 작용한다. 양력과 중력, 프로펠러의 추진력 그리고 저항력의 균형이 제대로 작용해야만 비행이 가능해 진다. 그렇다면 라이트형제의 비행놀이는 놀이였을까, 놀이가 아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놀이의 순간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이트형제 자신들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는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Piaget(1962)가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에서 설정한 놀이에 대한 기준과 관점을 살펴보면, 라이트 형제의 사물놀이를 놀이의 순간으로 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아동은 사물놀이를 통해 물리적 세계와 만나게 되고 물리적 지식과 논리-수학적 지식을 구성해 나가며 실험을 통한 지적 도전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정작 Piaget(1962)는 진정한 놀이의 순간에는 새로운 지식구성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구성 놀이는 순수한 놀이와 서로 대립되는 축에서 양끝의 거리에 있는 것, 즉 ‘학습’에 다가가 있는 경계선상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라이트형제가 비행기를 그리거나 대나무와 종이를 사용하여 비행기를 만들던 순간은 신체 감각적 기술과 상징적 표상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행기를 구상하여 재미있게 놀이한 순간이지만, 순수한 놀이의 순간에서 벗어나 학습에 가까운 경계선상의 활동이었다는 의미이다. 아동이 신나게 놀이했음에도 놀이가 아닌 학습에 다가간 활동이라고 부른 이유는 구성 놀이에서 나타나는 지적과정의 특성에 있다.

Piaget(1962)는 일상의 여러 활동 중 ‘놀이의 순간’에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놀이인 것과 놀이가 아닌 활동의 구분은 행위 안에 존재하는 평형화와 관련이 있다. 그는 사고의 발달과 학습은 동화와 조절작용의 결과인 평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할 때 진정한 놀이의 순간은 자기 목적적이고, 즐거움 그 자체이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과정보다는 체계성이 결여된 몽상이나 상징적 게임과 같은 순간이다. 이러한 동화가 지배적인 순간이 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지점이다. Piaget(1962)의 관점에서는 라이트형제가 비행기 놀이를 통해 비행의 원리를 깨닫고 비행기를 만들었던 순간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놀이라기보다 실험과 탐구

7) 임수진, 김윤희, 박형신, 이승하, 장경은, 탁정화 (2019). 놀이하는 유아-호모 루덴스를 향하여. 경기:양서원. 제3장의 일부 발췌

활동에서 발생하는 깊이 있는 사고의 과정이 개입된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동화 지배적인 놀이에서 벗어나 조절과 평형화를 통한 사고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순수한 놀이의 순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Piaget(1962)의 이러한 관점은 놀이인 것과 놀이가 아닌 것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즐거움의 요소가 가득한 일상적인 활동과 합리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진정한 놀이의 순간이 서로 만나는 여러 층위의 놀이 안에서 지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적응적 활동(adaptive activities)과 진짜 놀이의 순간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나 식사와 같은 명백한 일에 가까운 활동들도 과동기부여(Over-motivation) 되어 즐거움과 상징적 상상이 가득한 놀이와 같은 순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 나무블록을 바구니에 담아 정리하던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상상하며 “수박 아이스크림은 엄마 것! 딸기 아이스크림은 아빠 것!”을 외치는 순간, 정리정돈의 시간은 의무가 부여된 일이기보다 즐거운 놀이의 순간에 가까워진다.

무엇보다 놀이하는 자아는 심각한 갈등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Piaget(1962)는 프로이드의 무의식적 상징이론을 기초로 놀이하는 자아는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갈등이나 문제가 존재한다면 놀이하는 자아는 이를 적절히 수용하거나 억눌러 놓은 채 유희적 동화의 순간을 즐겨야 한다. 지적활동과 놀이를 구분한 피아제의 관점은 놀이중심의 유아교육과정에서 의미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첫째, 진정한 놀이의 순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피아제는 몇 가지 조건 가운데서 무엇보다 유희적 동화(ludic assimilation)의 순간이 존재해야 진정한 놀이의 순간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학습을 중요시하는 활동이나 아동 스스로 충분히 즐거워하는 놀이가 아닌 경우 놀이가 동화적 유희의 순간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오늘날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 과정이 유희적 동화의 순간과 지적활동의 순간이 잘 어우러져 있는지 살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의 놀이와 활동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계속 변화하고 전이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지적활동에서 순수한 놀이의 순간으로, 순수한 놀이의 순간에서 높은 수준의 지적활동 혹은 학습에 가까운 순간으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놀이와 일(혹은 학습)을 서로 대립되는 축의 양 극단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묘사한 Piaget(1962)의 이론은 때로 우리가 놀이와 학습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그러나 Piaget(1962)의 이와 같은 관점은 아동의 활동이 순수한 놀이에 가까운 경험이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학습에 가까운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성인의 고정된 관점에서 어떤 것은 놀이로, 또 다른 것은 일 혹은 학습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동의 놀이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 나가며

놀이는 아동이 세상과 어울리는 특별한 방법이다. 아동은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가운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나이, 성별, 그리고 다른 차이점을 가진 친구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놀이하는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고, 자유롭게 놀이하는 아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성인을 보며 상호 간 존중하는 태도를 익히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 사회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Hart, 2008). 이와 같이 놀이는 아동의 신체, 심리, 사회적 능력의 발달뿐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놀이 정책과 실천은 아동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보다 폭 넓은 삶의 기술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놀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아동의 놀 ‘권리’의 실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놀이 혁신이라는 정책 자체로 인해 놀이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되거나 특정 놀이의 유형의 실행이 놀이의 포괄적인 효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Lester와 Russel(2010)은 놀이의 이점은 예측불가능성, 무목적성, 자유로움, 자기 주도성 등과 같이 놀이의 본질 그 자체에 있다고 하였다. 놀이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동기화되는 성격을 가지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놀이 ‘혁신’이 놀이의 주체인 개별 아동, 혹은 아동이 속한 맥락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놀이할 권리의 실행과 평가는 ‘그것이 아동을 진짜로 놀게 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황옥경, 2012).

참고문헌

- 김명순 (2018).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9, 57-75.
- 이종희 (2010). 아동 놀이의 국가적 정책화: 영국의 사례. 아동학회지, 31(3), 161-181.
- 임수진, 김윤희, 박형신, 이승하, 장경은, 탁정화 (2019). 놀이하는 유아-호모 루덴스를 향하여. 경
기 : 양서원
- 편해문 (2015).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서울: 소나무.
- 황옥경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 서
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ries, P. (2003). 아동의 탄생[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문
지영 역). 서울: 새물결. (원저 1962년 출판)
- Burghardt, G.M. (2005). The Genesis of Animal Play: Testing the Limits. Cambridge,
MA: MIT Press.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3). General comment No. 17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art. 31). Geneva: United Nations.
- Chudacoff, H. P. (2007) Children at Play: An American Histor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David, E. (2008). 놀이의 힘 (이주혜 역). 서울: 한스미디어
- Fink, E. (2012). Oasis of happiness: Thoughts toward an ontology of play. Purlieu: A
Philosophical Journal, 1(4), 20-42.
- Gaskins, S. (2000). Children's daily activities in a Mayan village: a culturally grounded
description. Cross-Cultural Research 34: 375.389.
- Hawley, P. H. (2002). Social dominance and prosocial and coercive strategies of
resource control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2), 167-176.
- Hart, R. (2003). Containing Children: Some Lessons on Planning for Play from New
York City.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Vol.14, No.2, 135-149, 2003
- Huizinga, J. (2018).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이종인 역). 서울: 연암서가. (원저 1938년
출판)
- Hughes, F. P. (2012) 놀이와 아동발달[Children, Play, and Development]. (유미숙, 박영애,

- 유가효, 방은령, 장현숙, 천혜숙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10 출판)
- IPA. (2010). Promoting the Child's Right to Play: IPA Global Consultations on Children's Right to Play Report. Faringdon: IPA.
- Lester, S., & Russell, W. (2010). Children's Right to Play: An examination of the importance of play in the lives of children worldwide. The Hague: Bernard van Leer Foundation.
- Maslow, A.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eire, J. (2007). Qualitative research on children's play: a review of recent literature. In: Jambour, T. and Van Gils, J. (Eds) *Several Perspective on Children's Play: Scientific Reflections for Practitioners*. Antwerp: Garant.
- Piaget, J. (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Y: W. W. Norton & Company, Inc.
- Smith, P. K. (2010). *Children and play*. West Sussex, England: WileyBlackwell
- Vygotsky, L. S. (1980).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우리나라 유아의
사교육 참여 실태와 놀이권

”

김은영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우리나라 유아의 사교육 참여 실태와 놀이권

김은영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 유아기 사교육의 영향과 효과
3. 유아기 사교육 참여 실태
 -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별활동
 - 나. 시간제 학원 및 개별 교육

- 다. 반일제 이상 학원
 4. 유아의 놀 권리에 비추어 본 사교육
 5. 나가며
- 참고문헌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교육에 보다 빨리 노출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학습 중심의 조기 사교육은 오히려 사회·정서적, 인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학부모의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아들의 놀 권리와 쉼 권리를 매우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아동학대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라는 내용이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31조 아동의 쉼 권리와 놀 권리가 얼마나 침해받고 있으면, 국정과제에 이런 내용까지 나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17년 12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도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혁신과 함께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추진방향과 상반되게 유아교육 혁신 방안에 제시된 내용을 방과후 영어 금지로 인식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2018년 10월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아의 사교육 시작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사교육에 노출되는 시간과 비용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유아의 사교육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유아들의 권리와 연계시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유아기 사교육의 영향과 효과

유아기 사교육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한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가 더 많다. 유아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은 문제행동 등 사회·정서적인 측면에서 자주 보고되지만,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유아기 사교육의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가 있더라도 제한적이거나, 학습 중심의 사교육이 아닐 경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은 학교적응에 매우 제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소정·김진옥, 2016). 또한 ‘비인지사교육’을 받은 집단이 사교육을 아무 것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 창의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사회성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석, 2016).

유아기 사교육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고한 연구도 있는데, 조기 사교육을 받은 유아는 학습요령을 잘 터득하고, 대인관계에서는 자신감을 갖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주의 산만, 끈기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에 대한 지나친 인식, 자율성 부족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는 것이다.

유아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은 과도한 사교육의 수와 학습중심의 사교육에서 주로 발생하며, 문제행동과 사회·정서적 문제를 야기한다. 유아기에 경험하는 사교육 수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백혜정·김현신·우남희, 2005), ‘인지사교육’만 받은 집단은 사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석, 2016). 사교육으로 인한 정서, 사회,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관계의 어려움, 사회적 미성숙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 2016). 과도한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사회·정서적 발달에 문제가 있어 놀이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며,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대충 알고 쉽게 싫증을 내고 기본생활교육이 어렵다는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이부미·이수정, 2010). 유치원 하원 후 외부 학원에 다니는 아이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치가 높게 나타나며(김정원, 이정아, 2002), 유아가 경험하는 사교육 수가 증가할수록 비행, 공격성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이 커진다(백혜정, 김현신, 우남희, 2005). 또한 사교육에 많이 노출된 영유아들은 학습태도가 좋지 않고 집중력이 없다(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 이부미, 이수정, 2010)는 보고도 있다.

3. 유아기 사교육 참여 실태¹⁾

유아기 사교육이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거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상반되게 많은 유아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교육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과 이후에 받고 있는 시간제 학원 및 개별 교육,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체제인 반일제 이상 학원의 3가지로 나누어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별활동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 따르면, 유아²⁾가 하는 특별활동은 평균 2.9개이며, 4명당 1명꼴(26.2%)로 5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표 3-1 참고). 특별활동 개수에 있어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 이용 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과거에 비해 특별활동 이용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이용 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3-1〉 이용기관별 특별활동 총 이용 수

단위: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7.3	7.0	13.2	19.8	13.7	19.1	100.0(2,830)	2.5
영유아구분								
영아	40.2	6.1	16.9	20.5	10.4	6.0	100.0(1,012)	1.7
유아	20.2	7.5	11.1	19.4	15.5	26.2	100.0(1,818)	2.9
보육연령								
3세	21.0	7.1	10.7	20.2	14.8	26.1	100.0(630)	2.9
4세	18.9	7.5	11.2	20.8	16.6	25.0	100.0(532)	3.0
5세	20.5	7.9	11.5	17.6	15.3	27.3	100.0(656)	2.9
이용 기관유형								
어린이집	29.3	5.5	13.7	22.7	13.5	15.4	100.0(1,753)	2.4

1) 「이정원 외(2019).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미발간)」 자료와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Ⅱ):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리함.

2)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기관의 3~5세 유아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평균
유치원	20.0	9.8	12.8	16.3	14.8	26.2	100.0(1,009)	2.9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62.3	5.5	8.5	5.6	6.7	11.5	100.0(68)	1.4
2015년	30.7	7.9	13.2	19.5	13.0	15.9	100.0(2,535)	2.4
2012년	34.5	10.3	17.0	17.9	10.6	9.9	100.0(2,392)	3.0
2009년	41.5	16.7	16.6	12.8	6.4	6.0	100.0(2,048)	-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자료: 이정원 외(2019).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249 <표 V-6-1>의 일부를 삭제하여 사용함.

2세와 5세의 특별활동을 조사한 연구(김은영·최효마·최지은·장미경, 2016)에 의하면, 연령과 상관없이 체육, 음악, 영어 순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표 3-2 참고).

<표 3-2> 특별활동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비율(교사응답)³⁾

단위: %(명)

유형	5세
음악	22.2(415)
미술	9.8(183)
체육	24.9(464)
무용	1.6(30)
수학	2.8(53)
과학·창의	11.4(213)
국어	5.3(99)
영어	20.8(389)
기타외국어	0.4(7)
기타	0.8(5)
계	100.0(1,867)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240 <표 V-2-16>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이 가장 높은 과목은 기타를 제외하고 영어 프로그램으로 24,300원이었다(표 3-3 참고). 기관별로 보면 어린이집이 19,500원, 유치원은 30,500원, 반일제 학원은 73,300원으로 어린이집이 가장 저렴하였고, 반일제 학원이 가장 비용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3.8배나 되었다.

3) 모든 조사 대상 영유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들을 종합한 결과임.

〈표 3-3〉 특별활동 기관별·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비용지불아동)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기관별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F	
예능(미술, 음악)	23.0	20.6	3.0	260.0	19.2	27.1	87.6	152.8*** ^(a)	(1,734)
체육관련	20.0	18.0	3.0	300.0	17.2	22.3	96.8	247.1*** ^(a)	(1,697)
수학/과학 관련	19.7	20.1	3.0	290.0	14.7	22.1	92.5	89.8*** ^(a)	(677)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9.9	19.9	2.0	320.0	15.6	23.9	85.4	71.1*** ^(a)	(882)
영어	24.3	21.2	3.0	250.0	19.5	30.5	73.3	84.4*** ^(a)	(1,240)
기타	24.7	24.1	2.0	200.0	20.5	26.1	108.3	58.9*** ^(a)	(27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 $p < .001$

자료: 이정원 외(2019).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251 〈표 V-6-3〉

5세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의 학력은 대졸이 60.6%로 가장 많았고, 모른다는 응답도 19.8%로 높게 나타났다(김은영 외, 2016: 241). 5세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반 규모는 16~20명이 3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1명 이상이 32.8%였다(김은영 외, 2016: 242).

5세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교재·교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표 3-4 참고). 예체능과 학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습 프로그램은 학습지나 워크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세부 과목으로 살펴보면, 학습 중심인 수학, 국어, 영어 프로그램에서 학습지나 워크북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4〉 특별활동 프로그램 교재·교구(5세, 교사응답)

단위: %

구분	학습지나 워크북	책	교구	기타	없음	모름
전체	35.7	21.3	79.8	0.1	4.9	0.9
대분류						
예체능	9.0	4.8	88.5	0.1	7.9	0.6
학습	74.1	45.3	67.9	0.0	0.4	0.9
소분류						
음악	8.2	6.5	90.1	0.0	6.7	0.5
미술	30.1	12.0	82.0	0.0	6.0	1.1
체육	1.9	0.6	91.2	0.2	7.8	0.6

구분	학습지나 워크북	책	교구	기타	없음	모름
무용	0.0	0.0	63.3	0.0	36.7	0.0
수학	77.4	32.1	64.2	0.0	0.0	0.0
과학·창의	57.7	20.7	88.3	0.0	0.5	0.5
국어	75.8	64.6	27.3	0.0	1.0	2.0
영어	82.8	56.6	67.4	0.0	0.3	1.0
기타외국어	42.9	0.0	85.7	0.0	0.0	0.0
기타	35.7	7.1	50.0	0.0	14.3	14.3

주: 복수응답임.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Ⅱ):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44 <표 V-2-21>

기관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이유는 학부모의 요구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참고). 특히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학부모의 요구 때문에 개설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타외국어의 개설은 원장의 철학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다른 과목의 개설 이유와 달랐다.

<표 3-5>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설 이유(5세, 교사응답)

단위: %(사례수)

구분	학부모 요구	원장 철학	기관운영에 도움	타 기관의 추천	기타	아이들이 원해서	계
전체	64.4	15.3	14.5	1.9	3.4	0.5	100.0 (1,867)
대분류							
예체능	64.7	15.2	13.8	2.0	3.7	0.6	100.0 (1,092)
학습	64.7	15.4	15.4	1.4	2.9	0.3	100.0 (761)
$\chi^2(df)$	3.69						
소분류							
음악	63.6	17.6	12.3	1.9	4.1	0.5	100.0 (415)
미술	65.0	12.0	18.0	1.6	2.7	0.5	100.0 (183)
체육	65.9	13.8	13.6	2.2	3.7	0.9	100.0 (464)
무용	56.7	23.3	13.3	3.3	3.3	0.0	100.0 (30)
수학	52.8	30.2	15.1	0.0	1.9	0.0	100.0 (53)
과학·창의	58.2	14.6	19.2	2.8	5.2	0.0	100.0 (213)
국어	52.5	23.2	16.2	4.0	4.0	0.0	100.0 (99)
영어	73.5	11.3	13.1	0.3	1.3	0.5	100.0 (389)
기타외국어	28.6	42.9	14.3	0.0	14.3	0.0	100.0 (7)
기타	35.7	21.4	21.4	14.3	7.1	0.0	100.0 (14)

주: 2세 851개 사례, 5세 1,867개 사례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Ⅱ):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 245-246 <표 V-2-23>

교사는 5세 유아가 특별활동에 대해 78.2%가 매우 흥미를 보인다(3.8/4.0)고 응답하였으며, 학습 프로그램에 비해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정도가 0.1점 차이로 다소 높았다(표 3-6 참고). 이는 교사의 시각에서 특별활동이 유아에게 매우 흥미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목별로는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가 가장 높았으며, 기타외국어에 대한 흥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6〉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영유아의 흥미(5세, 교사응답)

단위: %(사례수), 점(표준편차)

구분	전혀 흥미 없음	별로 흥미 없음	약간 흥미 있음	매우 흥미 있음	계	점수	
						평균	F
전체	0.2	1.2	20.4	78.2	100.0 (1,867)	3.8 (0.5)	
대분류							
예체능	0.2	0.8	16.8	82.1	100.0 (1,092)	3.8 (0.4)	4.68***
학습	0.3	1.7	25.4	72.7	100.0 (761)	3.7 (0.5)	
소분류							
음악	0.5	1.2	25.1	73.3	100.0 (415)	3.7 (0.5)	na
미술	0.0	0.5	15.8	83.6	100.0 (183)	3.8 (0.4)	
체육	0.0	0.2	9.3	90.5	100.0 (464)	3.9 (0.3)	
무용	0.0	6.7	26.7	66.7	100.0 (30)	3.6 (0.6)	
수학	1.9	3.8	34.0	60.4	100.0 (53)	3.5 (0.7)	
과학·창의	0.0	0.9	13.6	85.4	100.0 (213)	3.8 (0.4)	
국어	1.0	1.0	34.3	63.6	100.0 (99)	3.6 (0.6)	
영어	0.0	1.5	28.0	70.4	100.0 (389)	3.7 (0.5)	
기타외국어	0.0	28.6	42.9	28.6	100.0 (7)	3.0 (0.8)	
기타	0.0	0.0	28.6	71.4	100.0 (14)	3.7 (0.5)	

*** $p < .001$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246 〈표 V-2-25〉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발달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교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김은영 외, 2016: 247). 5세 교사는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3.6/4.0)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프로그램보다는 예체능 프로그램의 발달 적절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목별로 보면, 흥미도와 유사하게 체육의 적절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타외국어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나. 시간제 학원 및 개별 교육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이정원 외, 2019)에서 유아의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수를 찾아볼 수 있다(표 3-7 참고). 유아의 31.4%가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비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용 기관에 따라서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이용비율은 학원이용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미이용의 경우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제 교육프로그램 이용비율이 높아지며, 2015년에 비해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이 더 많아졌다.

〈표 3-7〉 이용하는 총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수(전체아동 대상)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전체	77.7	13.6	5.5	1.7	1.0	0.5	100.0(3,775)
영유아구분							
영아	91.7	6.0	2.0	0.2	-	0.1	100.0(1,522)
유아	68.6	18.5	7.7	2.7	1.6	0.8	100.0(2,253)
생활연령							
3세	86.4	9.3	2.6	1.1	0.2	0.4	100.0(614)
4세	72.5	18.4	6.3	1.5	1.0	0.2	100.0(615)
5세 이상	57.0	23.5	11.3	4.2	2.7	1.4	100.0(1,024)
기관이용 유형							
어린이집	84.3	10.8	3.2	0.9	0.5	0.3	100.0(1,753)
유치원	58.9	25.0	10.8	3.5	1.4	0.5	100.0(1,009)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56.3	10.7	9.8	9.3	8.2	5.7	100.0(68)
미이용	88.8	6.6	3.3	0.4	0.5	0.3	100.0(945)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90.4	8.5	1.1	-	-	-	100.0(142)
200~249만원	87.6	8.5	3.0	0.2	-	0.6	100.0(244)
250~299만원	81.0	13.0	3.3	2.2	0.4	-	100.0(300)
300~349만원	82.0	12.0	3.1	1.4	0.7	0.8	100.0(591)
350~399만원	82.6	13.6	3.0	0.4	0.4	-	100.0(362)
400~499만원	77.2	14.7	5.8	1.0	0.9	0.3	100.0(727)
500~599만원	75.6	11.8	7.9	2.1	2.0	0.6	100.0(602)
600~699만원	72.0	16.9	6.9	2.7	1.0	0.5	100.0(328)
700만원이상	67.3	17.6	8.8	3.7	1.5	1.1	100.0(465)
모름/무응답	77.5	22.5	-	-	-	-	100.0(14)
2015년	82.5	12.0	3.9	1.1	0.4	0.2	100.0(3,56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기준

자료: 이정원 외(2019).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552 〈표 X-2-1〉의 일부를 삭제함.

같은 연구에서 시간제 학원 이용 영유아의 과목별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표 3-8>과 같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교육 유형은 체육으로 52.0%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미술, 음악 등의 예능 49.8%, 언어 16.4%, 수학/과학 관련 14.9%, 영어 13.3%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일관되진 않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시간제 학원 이용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2015년에 비해 예능, 수학/과학 관련, 언어, 영어의 이용 비율은 높아지고, 체육관련 이용 비율은 낮아졌다.

<표 3-8>시간제 학원 이용 영유아의 과목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49.0	51.7	13.0	14.7	11.7	8.1
영유아구분						
영아	44.3	50.0	2.0	4.9	1.9	18.0
유아	49.8	52.0	14.9	16.4	13.3	6.4
생활연령						
3세	50.9	45.9	8.0	13.4	14.7	12.3
4세	46.5	52.2	9.2	12.5	10.2	7.8
5세 이상	50.8	53.0	18.2	18.3	14.3	4.9
지역규모						
대도시	49.8	53.8	13.0	15.6	14.0	7.8
중소도시	47.3	52.0	14.0	14.3	10.6	8.8
읍·면	52.6	39.6	8.5	11.5	4.0	6.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8.6	62.2	9.7	-	2.9	9.5
200~249만원	48.9	30.4	15.7	25.9	5.2	9.3
250~299만원	40.0	56.6	13.7	20.0	7.3	9.8
300~349만원	48.6	49.4	13.8	11.0	12.5	13.8
350~399만원	49.2	44.9	6.2	9.6	3.6	1.6
400~499만원	44.0	49.6	11.4	14.2	10.7	11.8
500~599만원	54.3	56.1	14.0	22.1	12.3	5.1
600~699만원	60.4	49.3	11.8	10.8	6.7	3.5
700만원이상	47.8	56.5	16.2	12.2	20.6	8.1
모름/무응답	-	35.5	-	64.5	-	-
2015년	41.7	53.0	9.4	12.3	7.5	18.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이정원 외(2019).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553-554 <표 X-2-2>의 일부를 삭제함.

시간제 교육기관의 주당 이용시간은 <표 3-9>와 같다. 유아는 시간제 교육기관을 주당 평균 4.1 시간 이용하고 있었으며, 1~2시간을 이용하는 비율이 40.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5~6시간 27.7%, 3~4시간 16.4% 9시간 이상 9.7% 순이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 이용시간은 길어졌으며, 기관별로는 반일제 이상 기관, 모 취업여부별로는 모가 취업일 경우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표 3-9〉 시간제 교육기관 주당 총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2 시간	3~4 시간	5~6 시간	7~8 시간	9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47.3	15.2	24.4	4.7	8.4	100.0 (741)	3.7
영유아구분							
영아	86.1	7.9	4.9	-	1.0	100.0 (107)	1.7
유아	40.7	16.4	27.7	5.6	9.7	100.0 (634)	4.1
생활연령							
3세	61.6	18.1	12.3	0.9	7.1	100.0 (81)	2.8
4세	47.8	20.2	27.1	2.7	2.1	100.0 (151)	3.2
5세 이상	34.4	14.7	30.5	7.4	13.0	100.0 (402)	4.6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							
어린이집	56.9	15.3	19.4	2.6	5.8	100.0 (247)	3.0
유치원	35.4	16.2	33.5	6.1	8.8	100.0 (378)	4.2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40.5	8.8	13.1	15.2	22.4	100.0 (28)	5.2
미이용	73.5	13.7	5.3	-	7.5	100.0 (88)	2.9
모취업 여부							
취업	41.5	14.7	25.1	7.7	11.0	100.0 (366)	4.2
휴직중	73.3	9.5	12.4	-	4.8	100.0 (45)	2.3
미취업	49.5	16.7	25.5	2.1	6.2	100.0 (319)	3.4
모부재	76.2	10.3	13.5	-	-	100.0 (11)	2.4
2015년	45.8	14.4	28.4	5.0	6.3	100.0 (510)	3.6
2012년	41.8	10.9	33.6	5.1	8.7	100.0 (614)	4.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이정원 외(2019).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555-556 <표 X-2-3>의 일부를 삭제함.

시간제 학원의 유아 대상 프로그램별 월평균 비용은 기타를 제외하고 영어 프로그램이 11,200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 프로그램이 80,600원으로 가장 비용이 낮았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예능과 체육 관련은 비용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수학/과학 관련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언어와 영어는 4세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표 3-10〉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연령별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전체 (표준편차)	(수)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예능(미술, 음악)	64.8	105.5	68.9	64.9	62.7	77.7	97.0	113.2	100.2(64.6)	(363)
체육관련	64.9	108.6	126.7	61.0	58.3	77.3	107.7	113.5	102.5(64.5)	(375)
수학/과학 관련	52.7	91.9	-	-	52.7	104.5	102.6	88.9	91.0(60.5)	(85)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3.9	80.6	-	-	53.9	79.5	93.9	77.3	79.3(49.6)	(101)
영어	22.5	121.2	-	30.0	15.0	121.6	147.8	114.0	119.0(74.9)	(80)
기타	56.4	77.0	35.9	62.4	90.9	38.6	87.1	87.0	70.3(56.3)	(5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이정원 외(2019).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556-557 〈표 X-2-4〉

5세의 사교육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김은영 외, 2016), 기관 이용 이후의 사교육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국어 프로그램이며, 그 다음은 체육, 수학, 미술, 음악, 영어 프로그램 순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비율(5세, 부모응답)⁴⁾

단위: %(명)

유형	비율(사례수)	유형	비율(사례수)
음악	9.4(123)	과학·창의	5.1(66)
미술	11.0(144)	국어	24.5(320)
체육	19.0(248)	영어	5.5(72)
무용	3.1(40)	기타외국어	0.2(3)
수학	17.3(225)	기타	4.8(63)
계	100.0(1,304)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78 〈표 IV-2-20〉

5세 유아 대상 사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교재·교구를 살펴보면, 학습지나 워크북을 사용하는 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다(표 3-12 참고). 예체능 프로그램의 경우 교구의 사용 비율이 50.5%로 가장 높으나, 학습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습지나 워크북 사용 비율이 각 82.4%로 가장 높았

4) 모든 조사 대상 영유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들을 종합한 결과임.

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미술, 체육 프로그램은 교구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학, 국어, 영어, 기타외국어 등의 학습지나 워크북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학습 교과의 특성을 띄는 사교육은 유아의 경우에도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2〉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교재·교구(5세, 부모응답)

단위: %

구분	학습지나 워크북	책	교구	기타	없음	모름
전체	50.8	25.2	36.1	0.6	11.1	4.3
대분류						
예체능	10.1	20.2	50.5	0.5	24.5	9.9
학습	82.4	28.6	24.9	0.3	1.0	0.0
소분류						
음악	29.3	69.1	45.5	0.0	0.8	2.4
미술	11.1	11.1	72.9	0.0	6.3	12.5
체육	0.8	1.6	44.4	1.2	42.3	11.7
체육	5.0	17.5	22.5	0.0	52.5	12.5
무용	87.1	23.1	22.7	0.4	0.0	0.0
수학	56.1	22.7	65.2	0.0	6.1	0.0
과학·창의	85.3	31.9	15.6	0.0	0.6	0.0
국어	79.2	36.1	37.5	1.4	1.4	0.0
영어	66.7	33.3	0.0	0.0	0.0	0.0
기타외국어	65.1	33.3	31.7	4.8	3.2	1.6

주: 복수응답임.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 183-184 〈표 IV-2-27〉

5세 사교육 프로그램당 총 비용은 73,000원으로 나타났다(표 3-13 참고). 예체능 프로그램(90,500원)이 학습 프로그램(59,500원)보다 비용이 31,000원 정도 높았다. 총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기타외국어 프로그램으로 120,700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것은 수학 프로그램으로 52,800원 이었다. 국어나 영어 등 학습 중심의 프로그램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은 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영유아의 특성 상 학원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학습지 형태로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3〉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월 납입 비용(5세, 부모응답)

단위: 천원, %(표준편차)

구분	수강료	교재교구비용	총 비용
전체	66.6 (44.9)	6.4 (16.5)	73.0 (47.7)
대분류			
예체능	86.4 (39.1)	4.1 (11.5)	90.5 (41.3)
학습	51.4 (40.7)	8.1 (19.6)	59.5 (46.3)
<i>t</i>	15.42***	-4.45***	12.32***
소분류			
음악	93.0 (35.8)	4.5 (4.9)	97.4 (37.4)
미술	78.2 (39.0)	6.2 (13.7)	84.4 (40.8)
체육	93.5 (37.2)	3.0 (12.8)	96.5 (40.5)
무용	52.1 (38.4)	2.6 (6.6)	54.7 (38.9)
수학	46.8 (35.4)	6.0 (15.8)	52.8 (38.2)
과학·창의	59.8 (45.9)	16.7 (29.2)	76.5 (65.1)
국어	47.9 (37.7)	6.8 (18.8)	54.7 (41.5)
영어	70.7 (54.0)	12.9 (21.1)	83.6 (56.8)
기타외국어	116.7 (28.9)	4.0 (6.9)	120.7 (26.1)
기타	58.4 (64.9)	8.1 (14.5)	66.5 (63.1)

*** $p < .001$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84 〈표 IV-2-28〉

5세 부모가 사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로는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3-14 참고). 예체능 프로그램의 경우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지인 문의로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냈다. 음악이나 미술 프로그램은 아이가 원해서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체육이나 무용은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학은 지인문의로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과학·창의, 국어,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기관의 광고나 홍보물, 지인문의로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결과는 부모들이 영유아 자녀를 위한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시 자신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과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주변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거나 광고물을 보고 본인의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14〉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선택 경로(5세, 부모응답)

단위: %(사례수)

구분	주변 부모의 권유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봄	인터넷 검색	교육기관의 광고·홍보물	지인 문의	아이가 원해서	기타	계
전체	8.4	22.5	9.8	14.4	18.9	13.0	13.0	100.0 (1,304)
대분류								
예체능	8.6	27.4	4.7	9.2	16.4	22.0	11.7	100.0 (555)
학습	8.2	19.7	13.6	17.6	21.3	6.1	13.6	100.0 (686)
$\chi^2(df)$	112.00(6)***							
소분류								
음악	2.4	19.5	3.3	11.4	19.5	30.9	13.0	100.0 (123)
미술	8.3	22.2	6.9	13.2	18.8	25.0	5.6	100.0 (144)
체육	11.7	33.9	4.0	6.5	13.7	15.3	14.9	100.0 (248)
무용	10.0	30.0	5.0	5.0	15.0	25.0	10.0	100.0 (40)
수학	7.6	19.6	13.8	18.2	20.0	7.1	13.8	100.0 (225)
과학·창의	13.6	18.2	13.6	18.2	15.2	12.1	9.1	100.0 (66)
국어	6.9	21.3	14.4	14.7	22.8	4.7	15.3	100.0 (320)
영어	11.1	13.9	9.7	26.4	25.0	4.2	9.7	100.0 (72)
기타외국어	0.0	33.3	0.0	66.7	0.0	0.0	0.0	100.0 (3)
기타	7.9	9.5	14.3	25.4	15.9	7.9	19.0	100.0 (63)

주: 2세 392개 사례, 5세 1,304개 사례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85 〈표 IV-2-29〉

5세 부모는 사교육에 대해 자녀가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몰입한다는 응답이 50.1%(3.5/4.0)로 가장 많았으며,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도가 학습 프로그램에 비해 0.3점 높았다(김은영 외, 2016: 186).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5세 유아 부모의 기대는 학습이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았다(표 3-15 참고). 예체능 프로그램의 경우 자녀의 흥미를 기대하였으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학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차이를 보였다. 과목별로 보면, 음악, 미술, 무용 프로그램은 자녀의 흥미를 기대하였고, 체육 프로그램의 경우 자녀의 발달을 기대하였다. 학습에 대한 기대를 갖는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수학, 국어, 기타 외국어 등이었다.

〈표 3-15〉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기대(5세, 부모응답)

단위: %

구분	학습	발달	재능발견	흥미	없음	계
전체	35.4	23.8	5.7	33.9	1.2	100.0 (1,304)
대분류						
예체능	2.5	37.5	10.8	47.7	1.4	100.0 (555)
학습	60.8	12.8	1.7	23.6	1.0	100.0 (686)
$\chi^2(df)$	473.83(4)***					
소분류						
음악	5.7	13.0	25.2	56.1	0.0	100.0 (123)
미술	3.5	20.8	12.5	62.5	0.7	100.0 (144)
체육	0.4	59.3	3.2	34.7	2.4	100.0 (248)
무용	2.5	37.5	7.5	50.0	2.5	100.0 (40)
수학	68.9	9.8	1.3	19.6	0.4	100.0 (225)
과학·창의	21.2	24.2	6.1	47.0	1.5	100.0 (66)
국어	67.8	14.4	0.6	15.9	1.3	100.0 (320)
영어	40.3	4.2	4.2	50.0	1.4	100.0 (72)
기타외국어	66.7	33.3	0.0	0.0	0.0	100.0 (3)
기타	47.6	23.8	3.2	23.8	1.6	100.0 (63)

주: 2세 392개 사례, 5세 1,304개 사례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87 〈표 IV-2-31〉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5세 부모의 만족도는 3.3/4.0점으로(김은영 외, 2016: 188), 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 이상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과 학습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체능에 대한 만족도가 0.1점 정도 높았다(김은영 외, 2016: 188).

다. 반일제 이상 학원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반일제 이상⁵⁾ 유아학원은 747개원으로 계열별로는 외국어 계열이 659개원(88.2%), 예능 계열이 43개원(5.8%), 기타계열 27개원(3.6%), 종합 계열이 18개원(2.4%)이 운영되고 있다(김은영·김동훈·황준성·윤지연, 2018: 65).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이 296개원으로 전체 중 39.6%, 경기도가 193개원으로 25.8%, 부산이 49개원으로 6.6%를 차지하여, 3개 지역에서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의 72.0%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외,

5) 월 3,600분 이상 운영하는 외국어, 예능(미술, 음악 등), 기타, 종합 계열 학원

2018: 65). 반일제 이상 학원에 등록한 유아는 36,192명이며, 계열별로는 외국어 학원에 33,007명(91.2%), 예능학원에 1,375명(3.8%), 기타학원에 684명(1.9%), 종합학원에 1,126명(3.1%)이 다니고 있다(김은영 외, 2018: 72).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의 강사수는 총 7,116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4,449명(62.5%), 외국인이 2,681명(37.7%)이었다(김은영 외, 2018: 76). 교사자격이 있는 강사수는 총 1,918명으로 전체 강사 중 27.0%를 차지하였으며, 학원 계열별로는 외국어학원 강사의 22.9%, 예능학원 강사의 59.0%, 기타학원 강사의 83.0%, 종합학원 강사의 65.1%가 교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어학원 강사의 교사자격 보유 비율이 타 계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김은영 외, 2018: 76). 반일제 이상 학원의 강사 1인당 유아수는 5.1명이며, 계열별 강사1인당 유아수는 외국어학원이 5.1명, 예능학원이 6.3명, 기타학원이 5.1명, 종합학원이 3.6명 수준이었다(김은영 외, 2018: 80).

평균운영 학급수는 4.4개로 계열별로 보면 외국어학원 4.5개, 예능 2.9개, 기타 3.2개, 종합 4.5개로 나타났다(김은영 외, 2018: 84). 반일제 이상 학원의 교습시간은 1일 평균 262분(4.4시간)이었으며, 예능학원이 277분(4.6시간)으로 교습시간이 가장 많았고, 종합학원 262분(4.4시간), 외국어학원 262분(4.4시간), 기타학원 253분(4.2시간) 순이었다(김은영 외, 2018: 84).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819,865원이었으며, 외국어학원 840,862원, 예능학원 501,426원, 기타학원 692,444원, 종합학원 1,005,576원으로 종합학원의 월평균 교습비가 가장 높았다(표 3-16 참고). 월평균 기타경비는 74,210원이었으며, 급식비가 39,996원, 재료비가 17,376원, 차량비가 11,423원, 피복비가 5,268원이었다. 월평균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평균은 893,931원이었으며, 외국어 학원이 920,290원, 예능학원이 543,030원, 기타학원이 711,270원, 종합학원이 1,076,413원으로 종합학원 교습비 등이 가장 높았다.

〈표 3-16〉 반일제 이상 학원의 교습비 및 기타경비

단위 : 개원, 원, 분

계열	학원수	교습비			기타경비					계 (교습비 등)
		분당	교습시간 (1개월)	소계	급식비	차량비	재료비	피복비	소계	
외국어	659	154	5,548	840,862	44,086	11,421	18,305	5,614	79,597	920,290
예능	43	84	6,264	501,426	14,110	5,822	20,315	1,357	41,604	543,030
기타	27	122	6,004	692,444	12,000	2,200	3,550	1,067	18,817	711,270
종합	18	184	5,633	1,005,576	24,521	29,583	8,229	8,504	70,837	1,076,413
합계	747	150	5,616	819,865	39,996	11,423	17,376	5,268	74,210	893,931

출처: 김은영 외(2018).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 설립·운영제도 개선방안.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p. 95 〈표 Ⅲ-4-9〉 반일제 유아 대상 학원 계열별 월평균 교습비 현황.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신한 반일제 이상 학원의 일과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신에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5세 유아의 일과표(표 3-17 참고)를 살펴보면, 오전 9시 40분에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초등학교처럼 40분 단위로 시간표가 구성되어 있다. 수업방법은 주로 강의식과 토론식이라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긴 시간 동안 유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다. 이 학원에 다니는 유아는 매일 5~6개의 단위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간보다 더 과중하다.

〈표 3-17〉 영어학원 5세반 프로그램의 예

구분	월	화	수	목	금
9:40	파닉스	파닉스	Immersion	Immersion	Immersion
10:30	NF Reading	NF Reading	Hands on play	Interactive play	파닉스
11:20	Immersion	Immersion		Sensory Development	NF Reading
12:0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00	Language Arts	CCS	Language Arts	파닉스	Language Arts
		Creative Expression		NF Reading	
2:00 3:00	Making Connections	Making Connections	Making Connections	Making Connections	Making Connections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Ⅱ) -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253 〈표 VI-2-1〉

유아의 놀이를 표방하고 있는 놀이학원의 실체는 어떠한가? 놀이학원별로 프로그램이 다르겠지만, 한 놀이학원의 하루일과(표 3-18 참고)는 9시 30분부터 30분 단위로 과목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심시간 이후 한 과목을 더 하고 자유놀이를 마무리한다. 한 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활동 종류는 무려 18가지에 이르며, 하루에 해야 하는 과목도 자유놀이를 제외하면 6가지나 된다. 여러 과목 중에 영어는 금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한 타임이 잡혀있다. 그나마 매주 금요일은 특별한 날로 정하여 파티나 체험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놀이를 표방하고 있으나, 놀이학원에서 유아들의 선택은 없고, 똑같은 시간표에 따라 30분 단위로 활동을 해야 한다.

〈표 3-18〉 놀이학원 5세반 프로그램의 예

구분	월	화	수	목	금
9:30	인성교육	사이언스	아트	놀이수학	special day (생일파티, 체험놀이, 퍼포먼스, 생태체험)
10:00	오르다	가베	paper play	사이언스	
	놀이수학	델타샌드	케이크스	영어	

구분	월	화	수	목	금
11:00	영어	영어	영어	감성놀이, 음악	
	play gym	발레	레고	체육	
12:0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00	그림일기	언어	동화놀이	언어	
2:00	자유놀이	자유놀이	자유놀이	자유놀이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Ⅱ) -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255 <표 VI-2-4>

신체발달을 표방하는 유아체능단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유아체능단 5세반 프로그램은 다른 유형의 학원에 비해 수영 등의 신체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 있으나, 과목별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유아들은 오전 9시에 등원하여 오후 3시까지 1시간 단위의 과목별 수업을 소화하고 있다. 활동의 종류는 수영, 태권도, 인라인, 클라이밍 등 신체활동을 포함하여 18가지이다. 유아체능단의 프로그램에도 거의 매일 영어 과목이 들어가며, 한글, 한자, 독서글쓰기 등의 학습을 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시간은 요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표 3-19> 유아체능단 5세반 프로그램의 예

구분	월	화	수	목	금
9:00	태권도	수영	국악	수영	체육
10:00	인라인		인라인	이야기 나누기	웅변
11:00	영어	멀티영어	영어	멀티영어	로봇
12:0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00	미술	한자	독서글쓰기	과학	1주: 요리 2, 4주: 숲체험 3주: 체험
2:00	한글	바둑	클라이밍	수	
3:00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Ⅱ) -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255 <표 VI-2-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에 선택하는 다양한 학원들에서는 학습, 놀이, 체육 무엇을 표방하든 하루일과가 과목별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하루일과는 40분 단위의 수업을 4~5시간 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초등학교 1학년 시간표에 놀이 시간이 등장한 것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5세 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신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녀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20 참고). 그 다음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 22.9%,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18.6%, 감사 대 아동 비율 낮은 17.1%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학

원 유형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하는 유아 부모는 자녀의 소질이나 재능 개발 혹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 프로그램 수준이 높고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 개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곳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20〉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5세, 부모응답)

단위: %

구분	초등 준비 학습	강사 대 아동 비율 낮음	어린이집·유치원 다닌 후 새로운 경험 위해	어린이집·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소질·재능 개발	기타	계
전체	12.9	17.1	18.6	22.9	25.7	2.9	100.0 (70)
영어학원	9.7	22.6	16.1	22.6	29.0	0.0	100.0 (31)
놀이학원	23.8	19.0	23.8	23.8	9.5	0.0	100.0 (21)
유아체능단	0.0	9.1	18.2	27.3	36.4	9.1	100.0 (11)
기타	14.3	0.0	14.3	14.3	42.9	14.3	100.0 (7)
$\chi^2(df)$	na						

주: 70개 사례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89 〈표 IV-2-34〉

5세 부모들의 반일제 이상 학원의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3.2/4.0점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3-18 참고). 대상별 만족도는 집단 구성에 대한 만족도(3.3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용에 대한 만족도(2.8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원별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영어학원, 유아체능단, 놀이학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영어학원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 교재, 집단 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놀이학원의 경우 강사와 집단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유아체능단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상에 기술한 바와 같이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볼 수 있다.

〈표 3-21〉 반일제 이상 학원 정규프로그램 만족도(5세, 부모응답)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비용	프로그램 내용	교재	강사	집단구성	시설	전체 평균
전체	2.8 (0.7)	3.3 (0.6)	3.2 (0.6)	3.2 (0.7)	3.3 (0.6)	3.1 (0.6)	3.2 (0.5)
영어학원	2.7 (0.7)	3.3 (0.6)	3.3 (0.5)	3.2 (0.8)	3.3 (0.5)	3.2 (0.8)	3.2 (0.5)
놀이학원	2.7 (0.6)	3.0 (0.4)	3.0 (0.5)	3.1 (0.6)	3.1 (0.4)	3.0 (0.4)	3.0 (0.4)

구분	비용	프로그램 내용	교재	강사	집단구성	시설	전체 평균
유아체능단	2.7 (0.9)	3.4 (0.7)	3.1 (0.5)	3.1 (0.5)	3.2 (0.8)	3.1 (0.7)	3.1 (0.5)
기타	3.4 (0.5)	3.7 (0.5)	3.6 (0.5)	3.9 (0.4)	3.9 (0.4)	3.4 (0.5)	3.6 (0.4)
<i>F</i>	2.132	na	2.709	2.51	na	na	na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약간 만족, 4=매우 만족

출처: 김은영 외(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90 <표 IV-2-36>

4. 유아의 놀 권리에 비추어 본 사교육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31조에 아동의 쉼 권리와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본 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충분히 쉼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놀이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협약 당사국은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장려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으로 인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생애 초기부터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사교육은 유아의 특성 상 놀이를 중심으로 혹은 놀이처럼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경험 차원에서 하는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은 유아에게 놀이로 인식되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유아기 사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습으로 자녀가 남들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향후 학습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유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선택에 의해 유아가 참여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 권리 측면에서 보면 장시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과 후에 별도의 사교육에 참여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신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에 좀 더 심각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기관에 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 휴식과 놀이를 즐기며, 향후에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충분한 쉼과 놀이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과 후의 개별 사교육이나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에 올 다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유아의 개별 사교육에 대해 파악된 것은 별로 없으며,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학원 유형이나 개별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30분에서 1시간 단위의 과목으로 딱 찬 시간표는 영유아의 쉼 권리와 놀 권리를 상당 부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유아는 발달 특성 상 주의집중 시간이 매우 짧고 구체적 사물을 통해 주변 세상을 알아가고 배운다. 프로그램이나 유아 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30분 이상 1시간까지의 시간 단위로 구성되고 진행된다. 유

아의 주의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이나 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영유아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며, 이는 과도한 자극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활동이나 사교육이 진행되는 시간 중 상당한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 있으며, 이 자체로 놀이시간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은 유아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유아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분 단위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다양한 과목으로 이루어진 영어학원의 하루 일과에서 유아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강사가 요구하는 과업을 시키는 대로 수행한다. 일부 유아들은 매우 어려서부터 이러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서 강사의 요구에 잘 따르기도 한다. 유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아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를 통해 유아들은 인생의 첫 시작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야 한다.

최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10년 뒤의 미래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어떤 능력과 역량이 필요한지, 이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명한 건 향후의 교육은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창의적인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사교육을 불안감 때문에 유아의 쉼 권리와 놀 권리를 침해하면서 유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인생의 한번 뿐인 그 소중한 시간을 학원의 교과목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의 흥미와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한 박자 쉬어가면서 자녀가 미래 사회의 한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5. 나가며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은 유아의 권리를 침해하고 유아의 발달에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자녀 미래를 위한 교육 효과도 별로 없는데 부모는 왜 자녀에게 사교육을 그렇게 일찍부터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키는 것일까? 이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라도 더 빨리 많이 배워서 남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고, 이는 향후 학업과도 연계되며, 결국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부모의 기대와 다를 가

성이 매우 높다. 오히려 아동에게 쉼과 여유를 돌려주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리며, 재미 있고 즐거운 놀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유아 미래의 행복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공약집에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고 적절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더불어민주당,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7년 9월에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17. 9. 20). 그러나 사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사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아동의 놀 권리를 법으로 제정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사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편차도 있고, 부모들이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더라도 본인 자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교육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교육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에 앞서 사회복지 정책 및 노동정책과 연계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복지 및 노동 정책 측면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통한 아동의 놀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부모의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양육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 정책 또한 대입정책 개편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공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며, 사교육이 수월성 교육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재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 유아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모든 선택은 부모가 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 캠페인을 통해 부모가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를 인식하고 향후 자녀를 위한 큰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개성과 권리를 가진 한 개인으로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다양한 사안과 이해관계자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해결책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지만, 어떤 정책을 펴 나가든 그 중심에는 이해 관계자들이 아닌 유아가 있어야 하고 유아의 권리와 행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2017. 12. 27).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은영·김동훈·황준성·윤지연(2018).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 설립·운영제도 개선방안.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효마·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Ⅱ):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원이정아(2002). 유아의 방과후 활동 경험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121-137.
- 더불어민주당(2017). 나라를 나라답게.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23-43.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윤소정·김진욱(2016). 초등전 사교육 경험이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23(4), 55-79.
- 이부마·이수정(2010). 조기교육 - 불안한 부모와 바쁜 아이들. 시민인문학, 18, 85-107.
- 이용석(2016). 유아사교육 참여 형태가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마·이재화·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9).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미발간)
- 중앙일보(2017. 9. 20). “어린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영유아인권법 토론회.
<http://news.joins.com/article/21955221>. (2018. 3. 11. 인출)

“

토 론

”

이종희 교수 | 동덕여대 아동학과

오경숙 원장 | 면일어린이집

박다정 교사 | 위례푸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왕혜진 학부모 | 트위터·페이스북 육아당 운영자

우리나라 유아의 놀 권리와 행복에 관한 토론

이종희 |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첫 번째 주제인 임수진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놀이가 어떻게 수많은 곡절과 오랜 암흑기를 거쳐 비로소 아동의 특성으로 인정되고 그들의 권리로까지 개념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역사적 고찰이 진술되었다. 또한 유아 행복의 상당 부분은 그러한 역사적 결실로서의 놀 권리가 유아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성취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놀 자유, 그리고 인간적 어울림과 세상 탐구를 위한 진정한 시공간이 펼쳐져야 한다는 결론이 세밀한 이론적 분석과 함께 제시되었다. 많은 공부가 되었고, 놀이에 대한 기본 관점을 다시금 다질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유아 사교육 실태에 관한 최근의 주요 연구들 가운데 필히 살펴봐야 할 결과들을 선별해주신 김은영 연구위원님의 발표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 유아들의 놀 권리가 그들의 일상과 어우러져 있지 않은 단면이 드러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당 평균 특별활동 개수 2.9개’, ‘유아 4명당 1명꼴로 특활 개수 5개 이상’ 등의 수치들은 과연 유아들이 놀이와는 거리가 먼 특활 이전의 시간에만 놀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유아영어교육 금지 방침의 대안이 된 ‘놀이중심 영어교육’이라는 명칭이나, 집단적 단위 활동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유아 기관이 ‘놀이학원’으로 명명되고 있는 예에서는, 무의미하게 붙여 있는 ‘놀이’라는 단어로부터 우리 사회의 놀이에 대한 이해가 심히 피상적이고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발표에서도 강조되었듯이 놀이의 본질은 놀이자 스스로의 자유선택과 주도이기 때문이다.

“놀아서 행복해요!”라는 임수진 교수님의 발표 제목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유로움의 추구’가 실현되는 생애 최초의 장이 놀이여서이다. 속박은 불편, 불만, 나아가 불행감을 초래한다. 반면에 놀이는 자유로움으로부터 가능하고, 자유의 느낌은 행복감을 동반한다. 이는 우리에게 꽤 익숙한 Levy(1978/1990)의 놀이에 대한 설명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이다.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에게 놀이는 자유를 실감케 하는 자발적 행위이며,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고 인식하게 하는 일종의 소우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놀이는 행복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놀이가 행복과 관련된다는 것은 아동복지 관련 통계치를 통해서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바로 지난 5월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2018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류정희,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 27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지만 유아 시기의 낮은 행복지수가 아동·청소년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종합실태조사를 위해 사용된 지표에 여가시간과 여가활동, 인간관계, 주관적 웰빙, 지역사회 환경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그 결과로 나타난 낮은 행복지수는 본 심포지엄의 주제인 ‘놀이를 통한 행복’이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의 삶에서 좀처럼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최근의 사회·정책적 시도들로 2015년에 수립된 아동정책기본계획(2015, 보건복지부) 외에도, 아동 삶의 질 연구, 아동권리지수 개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의 놀 권리 향상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이와 같은 움직임과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30년 전 UN아동권리협약 제 31조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가 천명된 이후 해당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국가별로 시도되고 있지만, 여러 학문영역과 사회단체의 전문가들은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아동의 놀이실조와 그로 인한 현재 또는 평생의 무기력, 우울, 고립, 자기통제력 상실 등을 주장하며 경종을 울린다.

우리나라에 비하여 자연, 교육환경, 정책의 합리성 등 여러 측면이 선진적인 국가들에서도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현실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걱정스러움을 떨칠 수 없다. 청소년 자살의 증가는 물론, 연일 보도되는 사건 사고에 담긴 믿기 어려운 난폭성과 잔인성, SNS 댓글에서 표출되는 상대에 대한 무시와 폭언 등은 놀이실조와 심리사회적 문제의 급증을 원인-결과 관계로 보는 학자들의 주장(Brown, 2009/20010; Gray, 2013; Panksepp, 2012)이 가설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유아들, 많은 경우 영아 시기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좁고 봄비는 기관에 가야하는, 사는 동네조차 자유롭게 경험할 수 없는, 자연과 공터는 가까이 있건 없건 만질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세대인 지금의 유아들은 현재 어떤 심적 상태에 있고,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상황이 이런데도 오늘의 발표에서 조명되었듯이 유아들이 매일 오가는 반일제 이상의 학원과 시간제 학원은 물론, 놀 권리의 성지가 되어야 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집단 활동 위주의 사교육은 계속되고, 가정에서의 개별 사교육도 가중된다.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사교육의 돌봄 기능도 이용의 원인이겠으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부모의 불안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교육이나 집단 활동 자체에 있기도 유아를 대상으로 다수의 사교육을 의뢰하고 쾌히 전담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 속에 유아 놀이의 본질을 이해하고 존중할 여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아이들은 ‘놀고자’ 하지만 어른들은 ‘못 놀리겠다’는 생각이 집단 심리처럼 작동되고 있는 곳, 그곳이 우리나라의 유아 놀 권리와 행복이 머무는 현주소이다.

그렇다면 놀이 관련 정책은, 이처럼 잘못 작동되고 있는 심리와 인식의 개선책을 물리적인 개선책과 함께 갖고 가야 한다. 사실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 계획은 최근의 놀이관련 정책들에 이미 포함되어 있긴 하나, 그러한 방안들이 문장으로만 남지 않도록 치밀하게 기반을 다지며 나아가야 한다. 부모의 불안에는 지금 자녀가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과, 미래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 공존한다. 불안에는 또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가들의 주장이나 교육기관의 철학에 대한 불신도 섞여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은 그러한 불신과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놀이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적용할만한 것 중 한 가지는 임수진 교수님도 인용하신 놀이에 관한 진화론적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뇌신경학적 연구 결과이다. 이후에 짧게 소개할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동물을 대상으로 한 관찰연구거나 해부학적 또는 뇌영상적 연구들이지만,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기초로 인간의 놀이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더하므로 꽤 설득력이 있다.

1) 놀이에 대한 불신:

놀이는 아동의 본성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과연 행복과 직결되는지와 같은 의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 ① 놀이는 아동의 본성이다. 진화론적 관점에 따르면 자연은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특성을 선택적으로 대물림하고, 그러한 대물림에 성공하는 종일수록 영속된다. 잘 알려진 자연선택의 원리이다. 놀이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많은 종들에서 뿐 아니라, 조류, 어류, 곤충 등 다양한 종을 관통해서도 발견되는 행태이다(Smith, 2010). 이는 놀이가 자연선택이라는 생물학적 원리에 의한 특성임을 확연히 보여주는 현상이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해부학적 연구결과로, 놀이를 관장하는 뇌의 부위를 특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Pellis & Pellis). 더욱이 그 위치는 인간에게만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대뇌피질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곳적부터 진화하여 동물들에게도 발달되어 있는, 피질 하부의 감정 및 동기 관련 부위이다. 이는 놀이가 일종의 본능적 특성으로 충동처럼 촉발되는 것임을 나타낸다(Pankseep & Biven, 2012). 감정의 뇌 부위에서 일어나는 탐욕(seeking), 분노(rage), 두려움(fear), 애욕(lust), 돌봄(care), 슬픔(grief) 등은 촉발 부위가 피질 하부 내에서도 조금씩 다른데, 바로 그 주변에 놀이 촉발 회로(playful circuits)가 함께 있다는 것이다. 확대해석은 피해야 하나, 인간의 놀이도 원초적인 감정 체계와 마찬가지로 유전적으로 장착된 욕구 체계임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그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정상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 ② 놀이를 관장하는 부위가 원초적인 감정의 뇌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놀이와 행복감의 밀접성을 보여준다. 행복은 사고(thinking)가 아니라 느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놀이에 폭 빠져있는

유아들에게서든, 어린 침팬지들에게서든, 새끼 쥐들에게서든, 웃는 표정이나 같은 주파수의 웃음소리가 나타나는 것(Pankseep & Biven, 2012)은 놀이가 행복감을 불러오고, 놀이의 결핍은 우울감을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유아들은 놀아야 행복하지 않겠는가.

2) 놀이에 대한 불안:

설령 놀이가 유아의 본성이고 현재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주요 요인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행복과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에까지 연결되겠는가라는 의심이다. 연구들에 따르면,

- ① 놀이는 훈련이나 교육으로는 일일이 가르칠 수 없는 고도의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Pellis & Pellis, 2009). 동물의 놀이에 관한 최근의 문헌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놀이는 인간 남아 뿐 아니라 여러 종의 어린 포유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거친 신체놀이이다. 인간처럼 사회적 군집을 이루고 살면서 생존과 번식의 가능성을 높이는 종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놀이유형이다. 그런데 또래와 어울려 거친신체놀이를 많이 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뇌의 발달상은 감정의 뇌 내부에 위치한 편도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한 놀이 기회가 박탈되었던 경우, 편도체의 발달은 저조하다. 또한 행동적으로는 상대의 표정이나 몸짓의 의미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거나(즉, 상대가 적인지 동료인지 구분하지 못함), 놀이에서 승-패 또는 공격-수비의 차례를 공정하게 주고받는 암묵적 놀이규칙을 지키는데 능숙치 않은 특징을 보여준다.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말놀이와 언쟁놀이의 경우에도 복잡한 사회적 미세조정과 미세구분을 요한다(Brown, 2009/2010). 놀이식 농담과 비열한 놀림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구분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훈육으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래와의 격한 놀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이 모든 경험들은 편도체의 발달을 자극하여 감정 및 충동의 조절에까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년기의 또래놀이가 중요한 이유이다.

- ② 놀이가 뇌를 만들고, 뇌가 놀이를 만든다(Pellis & Pellis, 2009). 피질하부의 편도체에서 주로 촉발되는 놀이는 그 주변의 시상을 통해 대뇌피질의 구조화에 관여한다. 놀이에서 경험하는 풍부한 자극들은 감정의 뇌를 넘어, 피질의 신경세포 성장인자를 자극하여 뇌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Brown, 2009/2010; Pankseep & Biven, 2012). 즉, 놀이의 기회와 복잡성에 따라 뇌의 해부학적 구조는 달라진다. 반면에 놀이의 결핍은 대뇌피질의 총괄수행기능(executive functions) 부위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이 역시 놀이 기회가 전두엽의 회로 발달과, 피질하부 내 편도체의 정서조절 기능의 발달을 자극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Pellis & Pellis, 2009). 과연, “놀이는 복잡한 뇌가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도록 자연이 발명한 최첨단 시스템(Brown, 2009/2010, p.81)”이라는 표현을 할만하다.

마무리. 놀이의 기능과 가치를 너무 과장한 것일까. 보다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이러한 해석들은 놀이를 과신한 경향이 있다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 1900년대 후반의 ‘놀이 기풍 사조(play ethos)’ (Smith, 2010)와는 차별성이 있다. 놀이에 관한 최근의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약자를 재미의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는 놀이의 어두운 면이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전이 초래하는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험성 등, 놀이의 약점에 대해서도 짚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이가 본능이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이 이미 우리의 목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강한 우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놀이는 삶에 필요한 수많은 능력을 재미있게 습득하게 하는 기제라는 사실을 강변하며, 그러한 놀라운 생물학적 섭리를 억압하는 것은 죄라고 단언하는 백발의 진화심리학자 Peter Gray(2013)의 주장을 곱씹어봐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놀이를 도구화하려는 어른들의 욕망을 되돌아보고, 자유로움이라는 놀이의 본질을 진정성 있게 이해해야 한다. 그 자유를 유아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부터 고민하고 필히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류정희 (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Gray, P. (2013). *Free to learn: Why unleashing the instinct to play will make our children happier, more self-reliant, and better student for life*. New York: Basic Books.
- Levy, J.(1990). 놀이행동의 정의. 이은해, 지혜련, 이숙재 편역, *놀이이론*, 11-35. 서울: 창지사. (원저출판 1978).
- Panksepp, J. & Biven, L. (2012). PLAYful dreamlike circuits of brain: the ancestral sources of social joy and laughter. In Panksepp, J. & Biven, L., *The archaeology of mind*, chapter 10, 351-387. New York: Norton.
- Pellis, S. M. & Pellis, V. C.(2009). *The playful brain*. Oxford, England: Oneworld.
- Smith, P.(2010). *Children and play*. West Sussex, UK: Wiley-Blackwell.
- Stuart, B. (2010). *플레이, 즐거움의 발견*. 윤미나 역. 서울: 흐름출판. (원저출판 2009).

놀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환경은 준비 되었는가?

오경숙 | 면일어린이집 원장

토론자는 임수진 교수님의 논지인 유아의 놀 권리와 행복의 실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더 나아가 유아의 행복이 교사-부모-국가의 행복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의견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 현재 우리 사회가 영유아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환경인가?

영유아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영유아의 주변 환경(교사-부모-사회)이 영유아의 놀이를 지켜봐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의 문제이다. 어떠한 권리든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권리를 인식함에 차이가 있다. 성인이 영유아의 놀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영유아의 놀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른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영유아 시기에 놀 권리를 부여 받았다거나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어른들이 놀 권리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영유아의 놀 권리를 지켜주라고 하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영유아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 문제이다. 즉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발표와 ‘어린이집 평가제’의 화두인 놀이중심 교육이 수면 위로 떠오른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10년 가까이 적용되어 온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침에 교사들이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침은 교사들을 일정 부분 수동적인 역할을 취할 수 밖에 없게 하였기 때문에 영유아 놀이중심 교육은 교사들에게 참으로 낯선 역할일 수 있다. 예컨대 교사들은 10여 년간 놀잇감의 크기를 제한하고 영역별 교구 수량과 모든 영역의 활동을 골고루 이루어지게 했던 평가인증 지침에 익숙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을 잘 지켜내야 좋은 교사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지침이 교사들을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지는 않았지만 영유아들의 활동에 있어서만은 준비된 교육환경이었다. 그런 교육환경 속에 있던 교사들이 본

문 9페이지 23줄의 내용 「안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역으로 아동의 놀이에서 자유로움을 빼앗을 수 있다.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를 위하여 도전과 모험심을 자극하되 안전과의 균형도 적절하게 고려하는 놀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처럼 놀이중심을 따라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인식개선이 되어있는가의 문제이다. 영유아기는 신체조절 능력에 따라 혹은 몸 움직임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배운다. 예컨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학부모와 내국인 학부모의 사례를 소개해본다. 첫째 외국인 학부모 사례이다. 어린이집에서 놀이를 하던 외국인 유아가 얼굴에 큰 상처가 났다. 원장과 교사는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고 원장과 교사도 함께 병원으로 가서 다친 유아의 상처를 치료하였다. 의사는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원장과 교사는 걱정을 하면서 서로 눈치 보기에 바빴다. 그러나 유아의 상처 치료가 끝난 후 외국인 부모들은 원장과 교사 앞으로 와서 “미안합니다. 우리아이 때문에 원장님과 선생님을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두 분을 놀라게 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둘째 내국인 학부모 사례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규정대로 유아들의 매일 실외활동을 위해 옥상 놀이터로 나갔다. 두발 자전거타기에 관심이 많은 유아들... 두발 자전거의 소유에 대한 다툼으로 갈등도 생겼지만 친구간의 협력과 배려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다. 놀이 중 자전거를 타던 유아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다. 자전거를 잡아주던 친구도 함께 넘어진 것이었다. 유아들이 넘어지면서 먼저 넘어진 친구는 무릎을 다쳤고 다른 유아는 넘어지면서 자신의 치아로 입술을 찢어 입술과 손등을 다쳤다. 교사는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교실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약을 발라주었다. 교사는 하원 시 학부모에게 다친 경위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학부모는 원장에게 “두발자전거가 아이들에게 적합하냐구,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데 안전이 우선이지 자전거를 좋아해도 어린이집에서 타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칠꺼면 어린이집에 안보내도 됩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원장은 거듭 사과를 하였다. 원장은 학부모에게 함께 타고 잡아 주며 가는 것은 두 아이의 즐거움이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또 어린이집 입소 전 오리엔테이션 시 유아들의 활동내용을 상기시켰으나 학부모는 놀이가 우선이 아니라 안전이 먼저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이 두 사례는 놀이의 중요성과 놀 ‘권리’를 학부모가 어떻게 인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학부모들의 인식이 다르고 다양할진대 현재 우리사회 속 학부모 모습인 즉 보이는 지식교육을 선호하는 학부모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토론자는 비전선포 후 정책을 따르게 하는 현재의 구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만약 옳다면 영유아 주변 환경인 교사-부모-사회는 어떻게 이해시키고 준비시키고자 하는지 의문스럽다. 어쩌면 그 과정이 바뀌었다고도 생각한다.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가 먼저인 것이 아닌가 말이다. 교사는 정책을 이행하는 정책이행자라고 치부해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지 ‘국가정책의 자식’이 아니라는 항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놀 권리를 행사한 경험이 없는 학부모 대다수에게 ‘법이 그래’라고 말하며 ‘시민정신’을 요구하기엔 시기상조이다.

현실이 이렇다 하여도 옳음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은 이행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학부모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의 시작은 성인들에게 놀이를 경험하게 하고 놀이문화를 알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영유아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놀 줄 아는 교사-학부모-사회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놀 줄 아는 교사-부모-사회는 그들의 경험으로 영유아들의 놀 권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2.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방안

놀이는 영유아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 즉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요즘은 성인놀이 문화가 유행이다. 소수의 사람들은 어릴 적 자신이 좋아하는 블록으로 로봇을 만들고, 드론 등을 조정하고 만화책을 본다. 이들은 혼자서, 여럿이서 놀고 싶은 것이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놀 권리가 있는 환경에는 이들처럼 놀 줄 아는 어른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놀이문화를 활성화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놀 줄 아는 교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놀이문화를 접하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 기관(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는 다양한 교사 놀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교사가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교사들은 놀이 참여 경험을 통해 영유아들의 놀 ‘권리’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수 있어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고 반성적 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놀이중심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유아기-초등 학령기-중·고등 청소년기로 연계된 놀이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령기와 청소년기에는 학교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또는 수업과목에 놀이과목을 포함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놀이문화 정착과 연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놀 줄 아는 부모가 많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장 문화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온 국민이 함께 하는 필수부모교육을 만들고 이를 의무화 하여 놀 줄 아는 부모를 만들어야 한다. 또 아이와 함께 놀 줄 아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직장 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외부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탄력근무를 적용하는 회사에는 각종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방법 등이다.

끝으로 유아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유아를 존중하고 놀 권리를 만들어 낸 현장사례로 토론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지내다 보면 유아들에게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이다. 유아들은 일과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이러한 유아들의 소리가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의 마음에 닿은 어느 날, 교사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동의 권리와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교사들은 기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속 4대전략 중의 하나인 ‘놀이권’ 제공이 미흡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아의 의견이 반영된 ‘마음대로의 날’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교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마음대로 날을 진행하였다. 유아들의 「생각 모으기 - 함께 계획하기 - 의견나누기 - 실행 - 평가 - 추후 일과 반영」 등의 순환과정을 통해 ‘마음대로 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유아와 교사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 유아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놀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사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유아중심 활동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유아의 ‘놀이권’을 지켜주는 일은 어렵지 않다. 교사는 교사의 눈에 보이는 어린 유아들의 마음과 행동을 알아채는 순간 움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영유아기의 행복을 위한 놀 ‘권리’는 분명 옳은 생각이며 우리가 갖춰야 할 환경이다. 사회공동체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정책은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회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러므로 영유아기 놀 ‘권리’를 내세우는 교육정책이라면 사회구성원들을 이해시키는 더 많은 홍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가 옳음을 행함에 그 옳음이 공허함으로 남지 않도록 영유아의 놀 ‘권리’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교사의 입장에서 본 유아의 놀 ‘권리’

박다정 | 위례푸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1.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유치원에서 놀이는 자유선택활동시간과 바깥놀이시간에 주로 이루어진다. 이 시간은 유아 스스로 세운 놀이계획과 놀이방식이 가장 존중되는 시간이며 유아는 주도성을 가지고 자신의 흥미와 관심, 계획 등에 따라 놀이해나가며 또래와 우정을 형성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 모습을 관찰하여 유아의 놀이발달단계에 따라 관찰자, 공동참여자, 환경지원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유아의 놀이를 지원한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 속에서 나타나는 주제와 흥미를 중심으로 유아의 학습경험을 조직하여 유아가 놀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놀이의 속성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개별적인 유아에게 적합한 수업을 계획한다. 놀이는 유아의 생활 그 자체인 동시에 유아에게 효과적인 학습수단이며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2. 유치원과 ‘놀 권리’의 실현의 어려움

1)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높은 교실환경

유아의 놀이의 확장과 지원을 위해서는 교사는 유아 개개인을 잘 관찰하고 유아와 상호작용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하지만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유아의 수가 많아 개인차를 고려한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조교사 없이 교사 혼자서 학급의 모든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한 모둠의 유아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다른 모둠의 유아들을 동시에 도와주기 어렵다. 연령이 어린 유아들일 경우 교사와 함께 놀이함으로써 교사의 놀이모습을 모델링하고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놀이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교사의 지원이 없을 때는 놀이가 지속되는 시간이 짧거나 놀이상황이 와해되는 경우가 많다.

2) 유아 안전에 대한 교사의 책임과 우려

유아는 발달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도 불완전하다. 그래서 교사는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관찰하고 감독한다. 안전하게 놀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유아의 놀이를 제한하게 되기도 한다. 교사는 자신이 보지 못한 사이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교사는 조금이라도 안전사고의 염려가 있는 활동은 주저하게 되며 이것은 유아의 놀이를 제한하게 된다.

3) 놀이과정보다는 결과물을 중시하는 풍토

유아의 놀이과정은 자발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놀이집단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놀이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유아가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구성물을 만들며, 어떤 놀이는 결과물 없이 놀이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고 마무리되기도 한다. 또한 교사가 준비한 활동의 경우 흥미가 있는 유아는 참여하지만 흥미가 없을 때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모든 유아들이 활동에 참여하여 결과물을 남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진다. 유치원에서는 보통 작품모음집이라고 하여 유아의 작품을 수집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가정으로 보낸다. 작품모음집의 처음 시작은 유아의 작품을 보고 유아의 발달을 평가하며 이것을 가정과 공유한다는 것인데 이런 취지와는 달리 작품을 모으기 위해 활동을 하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풍토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작품을 남기기 위해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할애하여 활동에 참여하고, 또한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줄이고 소집단활동을 통해 작품을 남기기도 한다. 결국 유아의 놀이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4) 한글 및 수 교육 등 지적활동에 대한 요구

매년 학부모들과 상담을 할 때마다 유치원에서 한글과 수학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원의 대부분의 유아들이 가정에서 한글과 수교육에 관한 학습지를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도 학습을 시켜주기를 요구한다. 또한 이런 지적활동의 유무가 유치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측면에서 놀이와 수업 및 일상에서 한글교육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유아가 자연스럽게 문해환경을 접하면서 한글을 터득하도록 풍부한 문해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활동에 대한 요구는 교사가 유아들에게 한글을 직접 가르치게 하거나 한글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도록 한다. 실제로 교사는 활동사진이나 활동결과물 등을 보여주며 현재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놀이 속에서 어떻게 언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과 수교육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며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교육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3. 유아의 ‘놀이 권리’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1) 교사연수를 통한 교사 인식 개선과 전문성 재고

질 높은 유아의 놀이를 위해서 교사는 놀이를 준비하고 관찰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참여해야 한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양상을 관찰하고 그것에 따라 도움주기, 함께 놀기, 이끌어가기, 지지하기, 개방적 환경 조성하기 등의 개입을 하여 유아의 놀이를 의미 있게 이끌 수 있다. 교사의 상호작용과 역량에 따라 유아의 놀이의 질이 달라진다. 하지만 바쁜 업무와 일과 속에서 교사 혼자 전문성 향상을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동료교사와 함께 학습자로서 반성적 사고를 할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더불어 교육청과 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수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연수는 관심 있는 교사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에 많이 참여하는 교사와 참여하지 않는 교사는 당연히 교사역량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모든 교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을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누리과정 실행 시 교사들은 누리과정 지침서를 그대로 답습하여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놀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사 연수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재고와 더불어 교사 또한 자신의 학습에 맞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에 놀이를 녹이고, 또한 놀이를 통해 교육과정을 보완해감으로써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학부모 인식 개선

유아교육기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의 주도보다는 사립이나 민간 위주의 교육기관을 통해 발전해오면서 학부모의 요구와 인식이 유아교육기관의 방침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특별활동이나 지적활동이 많은 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으며 유치원을 초등학교를 가기 전 준비하는 기관으로 여기기도 한다. 유아는 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유아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받아야 하지만 교육기관의 선택은 부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캠페인을 통해 유아의 권리와 행복이 우선시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함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개성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행복한 아동과 안심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

왕혜진 | 트위터·페이스북 육아당 운영자

1. 들어가며

발표 1. "놀아서 행복해요!": 유아의 놀 '권리'와 행복의 실현

임수진 교수(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발표 2. 우리나라 유아의 사교육 참여 실태와 놀이권

김은영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를 살펴보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현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입장으로써 이들의 현 상황을 대변하고 우리
의 아이들의 행복을 실현하고자하는 토론에 참여한다.

2. 사교육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침해한다.

김은영 연구위원님의 연구 자료에서처럼 아이들은 사교육에 상당시간 보내고 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았던 부모들의 심리적 영향으로 아이들은 사교육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다.
미래의 우리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에 굳이 필요치 않아도 될 여러 교육들을 아이들에게 짐 지오며
대학이라는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철저히 준비되어야하는 목적구도의 삶을 지향하며 아이
들을 조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상당한 시간을 학원 혹은 홈스쿨프로그램 최근 들어 교육콘
텐츠에 아이들을 노출시킨다. 혹은 부득이하게 장기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 사
교육기관을 이용하기도 한다.

3. 우리나라 사교육참여 실태와 놀이권

임수진 교수님의 자료에서와 같이 아이의 놀 권리와 행복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에는 여러 필수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보다 세밀하게 사교육의 현 실태에 관하여 연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나은 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에 공감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독립된 공간을 공하고 성인의 관점이 아닌 아이의 관점에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고민할 과제는 상당히 많이 있다.

4. 사교육 올바른 방향

1)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파악

워킹맘, 조력자 없는 독박육아, 불안한 양육자의 심리,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노출 현사회의 문제점 등등 아이들이 자라갈환경이 아닌 현시대의 문제점을 적용하며 아이들이 이른 시기부터 교육 받아야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 조기교육으로 몰아넣는 것이 현실이다. 혹은 자녀를 양육함과 동시에 일을 하는 부모는 조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반드시 근무시간동안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봐줄만한 시스템을 구현해야한다. 취업이 힘들었고 집을 구하기 어려우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시대를 살아가며 내 자녀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이른 시기부터 염려하여 사교육을 계획하는 부모도 왕왕있다.

2) 사교육의 제공자역할

영유아기 아이들이 스스로하고 자하여 사교육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올바른 방향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교육을 제공하는 양육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3) 사교육의 올바른 방향

무조건 사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이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적한 시기에 적절한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지식주입식 사교육이 아닌 발달과정과 환경을 고려하여 놀이 개념의 사교육을 구성한다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5. 유아에게 미치는 놀이의 영향

유아들에게 놀이란 상당히 중요하다. 아이들이 태어나 웅알거리는 시기부터 찹찹으로 시작해 탐색하고 모방하며 움직이고 만지고 어울리며 울고 웃는 감정까지 놀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놀이 안에서 발달하고 놀이 안에서 경험하고 배우며 올바르지 못한 놀이 환경에서 다치고 상처받고 긍정적인 자아부터 부정적인 자아형성까지 이른다. 따라서 놀이시간은 아이의 삶에서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다.

1) 유아의 올바른 놀이와 정책의 상관관계

아이의 중요한 놀이시간을 적절한 시기에 맞게 형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이 스스로가 아닌 양육자이다. 아이를 출산하고 모든 부모가 좋은 환경을 가진 것은 아니며 모든 양육자가 올바른 놀이 환경, 적절한 놀이 환경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 아이를 양육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다. 따라서 양질의 정보를 되도록 많은 부모들에게 제공하며, 아이의 놀이의 중요성과 시기에 알맞은 놀이 환경과 상호작용 방법 등을 교육하는 정책을 계획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2) 올바른 놀이의 방향은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아이의 뇌 발달과 신체발달에 맞는 놀이 환경 표준화하여 제시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전반적인 환경(가정이나 양육시설)에서 놀이를 기반으로 한 양육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거나 교육하는 일에 힘쓰는 것도 필요하다. 아이들의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성되지 않는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놀이시간이 스트레스를 받아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 등을 근거해 부모를 교육하거나 전문적인 자료에 노출시킨다면 부모들은 좀 더 아이들의 행복한 놀이시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할 것이다.

6. 나가며

학부모입장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주변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충분한 모성애와 전지전능한 엄마의 모습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많은 시간 아이와 전쟁을 치르듯이 허덕여야 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잘 못자고 잘 못먹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 아이와 함께 놀며 매일 웃게 해주고 싶었지만 잘 몰

랐었고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도 점점 많아졌다. 어떤 때는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누가 알려주기를 바라기도 했다. 때론 노력해보지만 내상황과 맞지 않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일도 바쁘고 힘들지만 여러 부모들은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양육하고 또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은 더 살고 싶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부모도 올바른 육아의 태도와 방법을 알기위해 고민해야하고 노력해야 한다. 육아정책의 과제 또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기 목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 혹은 기관에서 아이들이 과연 행복하게 노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되짚어 보아야한다. 일부 부모들은 놀기를 좋아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대로 놀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놀이의 중요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현 정부와 이러한 연구기관이 있음에 참으로 다행이며 우리 아이들이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참다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위한 정책이 연구되어져 멋진 정책으로 실현되어지기를 간곡히 바래본다.

